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크리스천은 창조자 하나님의 아버지의 선한 창조의 임무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창조의 시간, 생명의 그리고 소멸에 대하여 자기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하여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바로 사용해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소유권자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천국확장을 위한 창조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창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7, 10절)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7월 26일 (토) 제 1493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청지기로서 물질관리 가르쳐라!

리더십저널닷컴, 증가하는 온라인 헌금 현주소와 바람직한 수용방안 보도

헌금을 온라인을 통해 주일 예배 시간이 아닌 상황에서도 교회에 내는 문제는 아직까지 논란 중이지만 계속해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즉 교회에 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교인들 즉 출장이나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출장 중인 교인 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헌금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위해 온라인 헌금 계좌가 만들어진다. 여기에 헌금을 크레딧카드도 내도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과연 교회 십일조

등을 온라인으로 내는 게 '성경적'이냐는 '교리적 해석'에서부터 그 방법이 더 많은 헌금을 유도해낼 수 있다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주장까지, 다양한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달라스 모닝뉴스'와 '리더십 저널닷컴'은 갈수록 첨단 양상으로 치달고 있는 온라인 헌금의 발전 양상과 허실을 짚어준다(New Innovations in Online Giving).

국민들이 사용한 수표는 500억장이었는데 2003년에서 370억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수표 프로세스 센터 몇 군데가 '파리'를 날리게 만들 정도로 수표사용이 감소한 것이다. 반면에 비자, 마스터스 회사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횡수가 지난해 21%나 증가했다.

온라인 헌금이 증가되는 교회들의 특징은 모두가 현대적 예배 스타일을 선호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목사 제이크스(T.D. Jakes)에 의해 설립된 대형교회(The Potter's House)는 현대식 예배 스타일로 유명한데, 크레딧 카드를 통한 온라인 헌금을 채택한 선구자적 교회로도 유명하다. 이 교회에 이어 달라스의 큰 교회들(First Methodist Church, Highland Park United Methodist Church, Park Cities Baptist Church)이 이 방식을 받아들였다.

온라인 헌금의 가장 큰 장점은 교회가 시기적으로 '여름 슬럼프'라고 불리는 불경기를 이겨나가게 해주는 방식이라는 점이다. 교인들이 휴가를 떠나면서 제때에 헌금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이럴 경우 크레딧 카드로 온라인상에서 헌금을 받는다면 분명 더 많이 거둬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물론 이외의 장점도 있다. 현대인들이 재정 관리를 하는 방식에 교회도 부응해줘서 편리함과 정확함을 보장해준다는 것도 포함된다. 현대식 기술을 통한 헌금 방식은 실수도 적고, 또 교회 입장에서도 여러 면에서 '안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3면으로 계속)

온라인 헌금은 복미 교회들에서 새로운 경향은 아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면서 대형교회로 변하는 과정에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 구성원들 중에 일정 부분을 차지하게 되면서부터 디지털 헌금의 필요성과 유용성이 제기되고 곧바로 교회에서 실행되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달라스 주변의 교회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활성화되면서 찬반양론도 불거지고 있는 실정으로, 달라스 모닝뉴스가 이에 대해 기사화하면서,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교회 내 크레딧카드 헌금화 실상에 대해 분석했다. More churches saying "amen" to credit cards).

달라스의 구세퍼드에피스코프교회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와 같은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비자나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카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십일조나 헌금을 내겠다고 신청하는 교인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교인들은 크레딧카드를 사용해 적립 포인트까지 받고 있어, 헌금도 하고 또 다른 보너스(?)를 매달 쌓고 있다.

그러나 반대 입장도 있다. 크리스천이 신앙의 실천의 하나인 헌금을 통해 '마일리지 적립'과 같은 세속적 혜택이나 이득도 취하려는 자세



크레딧 카드로 헌금을 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논란에 앞서 헌금을 드리는 자세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견해다.

가 과연 성경적이냐는 것이다. 또한 교회가 크레딧카드를 사용하게 조정해서 지금도 국가적으로 카드 및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 '일조'하는 게 아니냐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십일조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내는 방식이 신앙에서 요구하는 '진정'과 '신령'의 헌금 자세와 부합하느냐는 반대도 있다.

한편 전통적인 교회 헌금 방식인 '헌금통'이나 '헌금봉투' 사용이 이미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온라인 헌금이나 크레딧카드를 통한 헌금 증가에 단단하게 한 몫을 차지한다. 그만큼 헌금이나 수표를 통한 헌금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1995년에 미



2면

"스마트기기" 목회에 이렇게 활용한다...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인터뷰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16면

LACMA라이어, 8월 22일 The Spirit of Korea 공연

효과적인 단기선교 사역을 위한 6stations 모델!

M.O.M, TCCI 훈련프로그램을 단기선교 실제모델로 소개

교회는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목회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해 비일즈(Beals)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선교의식을 가진 목회자는 선교의식을 가진 회중을 낳는다." 세계 선교의 조류가 단기선교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내 한인교회들도 단기 선교운동 활성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M.O.M(Messengers of Mercy)선교회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단기선교를 위하여 단기선교 준비훈련 프로그램을 T.C.C.I(Teams Commissioned for Christ International, www.tcci.org)의 도움으로 마련해(6 stations Model)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동역 교회들을 섬기고 있다. 많은 한인교회들이 이를 자기 교회 사정에 맞게 조금씩 변화시켜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소개한다.

시청각 전도용품 사용해 복음제시 시작으로 사진 찍어주고 풍선 붙여주는 축제정거장까지



먼저 간단한 등록절차를 마친 사람들을 (30-50명 정도의 그룹으로) 강당 같은 장소에 모아 놓고 창조과학 영상자료를 보여주며 믿음의 기초가 되는 창조주,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창세기 말씀을 전함으로써, 옷의 첫 단추에 해당하는 창조과학사역을 옵션으로 포함시키면 좋다. 그 후에 6-7 STATIONS을 열고

- ①우선적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첫 정거장으로 인도한다. 복음을 부담감 없이 들을 수 있도록 간단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그러나 흥미를 끌 수 있는 시청각 전도용품을 사용해 복음제시를 한다.
- ②그들이 들은 복음에 대한 실천으로 의료나 치과 진료 및 위생보건 교육을 한다.
- ③안경: 복음에 대한 실천으로 안경공급-돋보기, 근시/원시/난시 안경, 선글라스 안경을 제공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5년 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유 로 광 고 안 내	둘출(표지)	3.5cm x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x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x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x 5.8cm		\$600.00
전면 1/4	7.7cm x 11.7cm	15.5cm x 5.8cm	\$350.00
		15.5 x 2.8cm	\$250.00
		7.7cm x 5.8cm	
둘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x 7.5cm		\$200.00

미 주 크 리 스 천 신 문 사	1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2	교회(기관)주소	
	3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4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5	사택주소	
	6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7	E-mail Add.	
	8	Web Add.	
	9	소속교단(정확하게)	

* 위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십시오.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시론

“자극의 감사”에서 “일상의 감사”로!



은희곤 목사 (참사랑교회)

미국 프리스턴신학교 초대학장을 지낸 알렉산더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뛰어 들어와서 너무나 감격스러워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교수님! 제가 오는 마차를 타고 오다가 갑자기 말이 놀라서 벼랑 아래로 떨어졌는데 마차는 산산조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멀쩡하네요. 하나님이 지켜 주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청년의 고백을 들던 알렉산더 교수는,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하네, 그러나 여보게! 나는 지난 40년 동안 마

차를 타고 그 길을 다녔는데 단 한번도 사고가 난적이 없네. 난 자네보다도 더 감사하네 그러”라고 대답했습니다.

요즘 우리는 너무나 자극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큰 사고와 질병 그리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께는 감격스런 감사를 드리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순간 순간마다 대단히 세심하게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냥 만성적으로 지나치며 감사에 인색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성인을 기준으로 심장은 하루 동안 자그마치 10만3천6백89번을 뼉다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운동을 할 때에도, 무의식중에도, 잠을 잘 때에도 그렇게 10만번이 넘게 뛰고 있습니다. 또 하루 동안 2만3천40번 숨을 쉰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수고를 해서 심장이 이렇게 잘 뛰고 있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기에 나의 폐가 이렇게 잘 호흡하고 있었습니까? 나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도, 아니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의 심장과 폐를 건강하게 움직여주십니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일상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아파서 침상에 있지 않고 내자를 운전해서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치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일상의 감사입니다.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는 믿음으로 사는 자로 인도해주시는 것도, 비록 힘들지만 매일 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도, 서로 못마땅해서 투닥거리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일지라도 그들이 함께 있다는 것도, 하다못해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입으로 말할 수 있는 것조차도 매일 매일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하나님 은혜입니다. 반대로 “없다고,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는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나치지 말고 잊지 말고 기억하여 감사해야 합니다. 일상의 감사입니다.

애완용 동물 가운데는 대표적으로 “강아지”가 있고 “고양이”가 있습니다. 동물학자에 따르면 고양이와 강아지는 기억장치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주인이 열 가지를 잘못하고 한 가지만 잘해주면 그 한 가지 잘해주는 것 때문에 주인을 좋잘 따르고 고맙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양이는 열 번 잘해주다가도 한번 잘못해주면 그동안 잘해준 모든 것조차 잊어버리고 잘못된 것 하나 때문에 토라져서 주인을 잘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인생도 강아지형이 있고 고양이형이 있습니다.

뭘 해줘도 맞았다. 맞았다하며 먹어야 해주는 사람도 마음이 기쁘게 맛있는 거 더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들도 감사하다, 감사하다하며 살아야 하나님도 기쁘셔서 “내가 더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줘야지” 마음먹으십니다. 요즘은 더운 여름이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칫 이때가 되면 불쾌지수도 올라가고, 지나고 보면 별거 아닌데도 그냥 사람들과 부대끼고 상처를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짜증나기 쉬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이런 때일수록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치지 말고 찾아내며,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여 “자극과 짜증의 감사”를 “일상의 감사”로 바꾸는 신앙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일상의 감사로 가는 곳곳마다 감사 바이러스를 퍼뜨리셔서, 감사하는 내가 있기에 교회도, 가정도, 일터와 직장도, 친구들과 이웃들 간에도 같이 감사하여 무더운 여름을 일상의 시원한 감사로 이겨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스마트기기” 목회에 이렇게 활용한다

슬링스톤즈, 목회자가 제공하는 스마트기기 실제 목회 활용 노하우 소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를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세상과의 소통은 늘 고민해야 할 문제다. 오늘날 수많은 스마트기기가 개발이 되고 보급되는 과정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스마트기기를 갖고 있지만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목회는 잘하지만 스마트기기를 잘 활용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있고, 스마트기기는 잘 사용하지만 목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아직 경험과 성찰이 부족한 목회자들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컴퓨터나 스마트기기 등이 목회의 현장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많고, 이미 어떤 목회자들은 목회 현장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 그 노하우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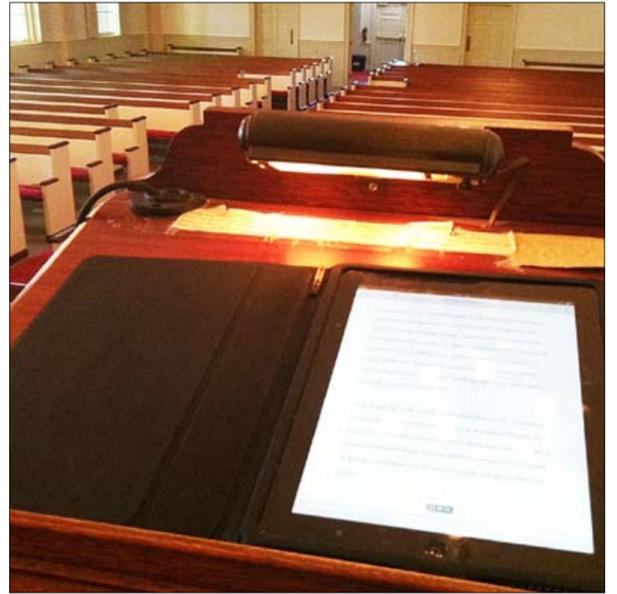
1. 목적에 맞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한다.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 수많은 기기들이 존재하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고민하게 된다. 물론 그 답은 “목적에 맞는 스마트기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럼 각각의 기기들의 목적은 무엇이고,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기

기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와 고민이 있어야 한다.

스마트폰은 전화의 기능이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이 더해져 있다. 태블릿과 노트북은 휴대성을 강조하며 진화해왔다. 그런데 적지 않은 교회지도자들이 태블릿과 노트북을 혼동한다. 그래서 태블릿을 두툼한 가죽케이스에 담아두거나 무선키보드를 장착해서 노트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노트북이 갖고 있는 짧은 배터리 수명을 극복할 수는 있겠지만 휴대가 용이한 태블릿의 활용도는 점점 낮아지게 될 것이다.

훌륭한 필터링 시스템을 지니고 있다. Google Calendar: 교회행사를 위한 계정과 유스 그룹, 주일학교 그룹 계정 등 기관별로 캘린더를 작성 운영하고, 웹사이트에 통합해서 보여준다. Google Voice: 목회자로서 임지에 따라 옮겨갈 때, 휴대전화번호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구글 보이스



목적에 맞는 기기 선택, 다양한 기능 활용 정보공유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적극 사용

를 통해서 고유의 전화번호를 받아 사용한다. 회의 중에 전화를 받을 수 없을 경우 상대방이 남겨놓은 메시지를(영어) 정해진 스마트폰으로 문자변환해서 보내주는 것도 아주 편리하다.

2. 구글을 목회에 활용한다. 유튜브 뿐만 아니라 구글 서치엔진을 통해서 정보공유를 하고 있는 구글 회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앱들은 오늘날 변화되어 가는 환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Gmail: 이메일은 편리성 못지않게 스팸을 양산해서 불편하기도 한데, G메일은 스팸메일의 알고리즘을 분석해서 필터링해주고 있는데 100퍼센트는 불가능하지만 현존하는 각종 이메일 가운데 가장

Google Docs: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와 같은 정교한 문서 작성은 되지 않지만, 오히려 자주 사용하는 간편한 기능들이 일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구글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리젠테이션 등을 만들어서 그 링크를 예매 준비하는 팀들과 공유하며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간다. 목회 마일리지 기록과 계산도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해서 만들고, 기도 요청을 받거나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해서 간단한 메모와 함께 기록해 두면 지속적인 돌봄에 도움이 된다.

Google Spreadsheets: 스프레드시트는 매주의 출석통계와 헌금통계 등을 손쉽게 기록해서 교회지도자들에게 현재 상황(Current Reality)을 보여주고, 원하는 미래(Desired Future)에 관한 그림을 함께 그리고 실행계획(Action Plan)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

3. 클라우드 서비스를 적극 활용한다. 사무실과 집, 그리고 이동 중에 사용하는 기기들이 각각 다를 때, 이전에는 휴대가 용이한 기기에 담아 가지고 다녔지만 이제는 네트워크 서비스와 인터넷 속도의 발전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하게 됐다. 이를 위해 DropBox, OneDrive, Google Drive 등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데, 드랍박스의 무료공간은 2기가지만 구글드라이브는 G메일을 포함해 15기가를 제공하고 있다. 복수의 구글 드라이브 계정을 오픈하고 그 파일을 폴더로 공유하면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4. 스마트기기의 다양한 감각 기능을 활용한다. 거의 모든 스마트기기에 있는 카메라와 오디오 기능을 적극 활용한다. 때로는 칼라 사진보다도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처럼, 비디오카메라와 앱이 익숙지 않은 분은 오디오 녹음 기능을 활용해서 시설에 있는 교우들이나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의 음성을 녹음해서 들려주는 것도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유익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스캐너가 없다면 사진기를 활용해서 각종 문서나 자료, 영수증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에버노트에 바로 저장해두면 필요할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5. 스마트기기의 다양한 감각 기능을 활용한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 서리·유원정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8(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본교 소개

- 1986년도에 설립된 대학교로서 미조리주(MDHE)와 버지니아 주(SCHEV)의 인가를 받고 ATS(미국신학협회)와 ABHE(미국기독교대학협회) 회원대학입니다.
- 본교 동문과 재학생은 60여 개국에서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최고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미래에 도전하는 비전 있는 대학교입니다. (본교 동문 리스트를 www.midwest.edu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음)
- 각 전문분야의 최고 교수진을 통한 미래지향적 융합교육프로그램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 Master of Church Music
 -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 Master of Divinity
-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Church Music
 -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7620 Little Rive Tnpk #400, An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교리적 해석' 부터 '현실적 대안' 까지

리더십저널닷컴, 증가하는 온라인 현금 현주소와 바람직한 수용방안 보도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온라인 현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녀 신앙교육 측면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으로, 부모들이 교회에서 현금봉투를 사용해 현금하는 것을 보고 자라면서 신앙 훈련을 배우게 되는데, 온라인 현금을 하게 되면 그런 기회를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금은 예배의 요소인데, 예배 현장에서의 현금 순서를 제거한다면 현금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게 되며, 단지 교회 기금을 마련하는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만다는 것이 온라인 현금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자다.

밀레니엄이나 X세대들은 온라인 현금을 지지한다. 대부분 현금을 소지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즉 모바일 뱅킹처럼, 예배 현장에서 은혜를 받는 순간 현금

트웨어 공급회사(Blackbaud)에 따르면 미국 경기 부양과 함께 비영리단체에 대한 현금이나 지원이 증가했는데, 특히 온라인을 통한 지원이나 현금이 증가하고 있다. 또 밴코(Vanco)의 분석에 따르면, 교인들의 온라인 현금이나 크

으로 교육시켜 현금을 통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법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더 지지를 받아가고 있다. 밴더빌트대학 신학과 학장인 허드널-비러 목사(James Hudnut-Beumler)는 "전능자의 달러를 찾아서: 돈과 미

"주택 페이먼트를 해나가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께 현금을 내고 교회를 돕는 일에 대해서는 덜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인가. 주택 월 페이먼트를 온라인으로 하듯이 매달 15일에 현금을 하도록 하는 게 왜 하나님을



성경적 재정관리, 이론과 실제 워십 통해 체계적 교육 현금 방법보다 물질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법 가르쳐야

을 하는 것이 왜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이들은 되묻는다. 교회 온라인 현금 관리회사(Vanco Service)에 따르면, 모바일 현금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급성장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테블릿으로 간편하게 크레딧카드 정보나 단말기에 굽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다.

현재 온라인 현금은 그야말로 미전역 교회들에서 채택하고 있다. 사용 여부에 따른 찬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여러 통계들이 이를 뒷받침 해준다. 비영리단체 소프

레딧카드 현금 수수료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2009년에만 42%나 급증했다.

여기에는 바로 "밀레니엄 세대의 영향"이 거세다. 18-32세 젊은 세대들이 비영리단체에 기여하는 자선금액을 모바일이나 SNS를 통해 기여했는데, 밀레니엄 세대들은 이전 세대들에 비해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현금이나 기여를 하는 성향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교회에서 온라인 현금을 수용해야 하고 이를 성경적

국 신교의 역사"(In Pursuit of the Almighty's Dollar : A History of Money and American Protestantism)라는 책을 통해, 변화되고 있는 현금 방식을 수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현금봉투는 1890년대에 사용되기 시작했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교회들이 새로운 재정 운영 형태에 적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온라인 자동 현금 등하게 놓기 때문이다.

모독하는 일이라는 것인가?"

따라서 교회는 온라인 현금 사용 추세의 증가에 따라 성경적인 재정 관리를 실제적인 이론과 실재를 워십들을 통해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 온라인 현금을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들의 제안이다. 현금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논란보다는 물질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물질의 청지기로서 온전하게 사용하며 자신보다는 남을 위해 사용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장수비결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의 연수에 비하면 100세 장수는 장수축에 끼지도 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세 노인이 1천명이 넘고, 일본의 경우 4천명을 넘는다고 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장수 비결을 정신적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미가 급한 사람은 단명하기 마련인데, 그 원인은 스트레스를 자신이 만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경은 장수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으로 설명하고 있다.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는 한 구절만으로도 장수가 은총의 선물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의한 장수나 병든 장수는 복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다. 잘된다는 것, 거기엔 다양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영과 혼과 육이 통전적으로 잘되는 것을 의미한다.

건강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영적으로는 무척 건강함에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체적으로는 건강을 내세우고 살지만 영혼이 병들어 흐느적대는 사람이 있다. 성경이 말하는 잘된다는 것의 우선순위는 물론 영혼의 문제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을 견뎌 살아야 하는 존재인 이상 육체의 질병을 외면하거나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최근 연구기관의 보고에 의하면 남성에게 비해 여성의 수명이 더 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인 남자의 평균수명이 67.7세인데 비해, 여자는 75.5세, 대만은 남자 75.3세와 여자 76.8세, 미국은 남자 71.3세와 여자는 78.6세, 일본은 남자 76.1세와 여자 82.1세, 프랑스는 남자 72.3세와 여자 80.9세, 스웨덴은 남자 74.8세와 여자 80.4세로 여자의 평균 수명이 단연 길다.

그 원인을 학자들은 남성의 염색체 활동 속도가 여성보다 빠르기 때문이며, 남자에 비해 여자의

생활패턴이 절제되고 있기 때문이고, 여성의 출산율 감소 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정신적 긴장 증후군이라든지 과욕, 그리고 과음, 과식으로 인한 무절제 등은 남자의 수명감소원인으로 치부되고 있다.

그러나 성경은 살고 죽는 것, 가는 것과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가르쳐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다. 하물며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여자가 지나는 강점은 오래 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남자는 세계를 정복하고, 여자는 남자를 정복한다는 말만으로도 여자의 능력과 그 역량을 짐작할 수 있다. 또 한국을 위시해서 핀란드, 파나마, 라트비아에 탄생한 여성 대통령과 미얀마의 민주화 영웅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아웅산 수치, 영국의 대처 등 현대 정치사에서 주목받는 여성들이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로서 여성의 자리매김이다. 수많은 위인들과 우리네 보통 아이들이 어머니의 사랑의 품안에서 고통치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성장했다. 따라서 여성의 장수 비결은 배풀었던 사랑과 결미진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본다.

오래 산다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서는 별 의미가 없다. 어떻게 오래 사느냐와 무엇을 하며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다. 가령 주색잡기와 도둑질로 날들을 채우는 장수라면 무슨 가치가 있겠으며 뜻이 있겠는가. 반짝 인기로 시선을 끌다가 무대에서 사라지는 그런 삶보다는 느리고 또 느리더라도 잘되고 장수하는 삶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다.

오래 살자. 그러나 지루한 인생 일량 끝장을 내자, 잘되고 오래 산다면 천년인들 마다하겠는가.

효과적인 단기선교 사역을 위한 6stations 모델!

(1면에서 계속)

④이발 및 미용, 손발 닦아주는 사역: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섬김의 사역장.

⑤섬김(GIFT)사역의 STATION을 통과하게 하며 이들 섬김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잠시나마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역자들이 시종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 STATION에서는 작은

정성된 선물을 준 후 복음의 골자를 말씀으로 확신하게 하며(죄, 십자가, 회개, 성령, 천국을 상징하는 5가지 색깔의 시청각 전도용품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결신하게 하는 STATION을 거친다.

⑥사진을 찍어주고 풍선을 불어주는 축제의 정거장으로 마치게 한다. 구원의 소식을 들은 기쁨이 가득 찬 자신들의 얼굴을 디지털 카메라와 휴대용 컬러프린터를 사용해 즉석에서 사진에 담아 사진에다

그 나라 말로 적은 요3:16 성구 스티커를 부친 후 라미네이트해서 영구히 간직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쁨을 선사하고 나면, 단기선교 사역자들의 가슴이 얼마나 벅차오르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고, 선교지 사람들을 섬긴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는다.

여기에 현지의 건강문제를 예방하고 계몽하는 차원에서 156가지 그림의 포스터로 현지인들을 가르치는 위생건강교육 station을 더할 수 있다

결론으로, 누군가 "오늘의 준비

는 내일의 성취를 결정짓는다"라고 말했다. 팀이 함께 준비하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마음이 넓어지고,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을 위한 큰 과업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연합하게 된다. 단기선교훈련은 참으로 중요하다. 훈련을 받고 가는 경우와 훈련을 받지 않고 가는 경우의 차이는 매우 크다. 대부분 교회들이 나름대로 자체 내의 선교훈련 프로그램을 갖고 선교지에 가기 전에 훈련에 임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다.

부목사님 청빙

저희 뉴욕장대현 교회에서는 소명 받으신 신실한 목회자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자격요건

-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M.Div)목회자 중 미국 합동 개회 장로회(ARPC)교단 소속이거나 본교단 가입 가능한 분
- 목회 3년 이상 하신분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이거나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 이력서(가족 사진 첨부) 1부
- 목회 비전 및 소명서 1부
- 목사 안수 증명서 1부
-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2편
- 본인 및 가족 소개서 1부
- 신학 대학원 졸업 증명서 1부
- 목회자 추천서 2부

제출처

E-mail 주소: ktpchurch@aol.com
우편주소: 39-15 Woodside Ave. Woodside NY 11377

제출기간

2014년 8월 20일 까지

기타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선정된 분은 개별 통보합니다.
문의사항: 지덕일 장로(646-552-4231)

뉴욕 장대현 교회 청빙위원회
www.jdchurch.org

Seeking a Part Time Pastor for English Ministry

Glenview Korean Covenant Church is seeking a Part Time Pastor for English Ministry.

* Qualification :

1. have a vision and passion for the 2nd Generation ministry.
2. Fluent in English.
3. Graduate or candidate from an accredited theological school

* Application Requirements:

1. Resume
2. Personal Statement of Faith and Vision for 2nd generation ministry

Send in above documents by August 20.
We will not be returning the documents.

* Send or mail to :

Glenview Korean Covenant Church
700 Greenwood Road, Glenview, IL 60025
Tel: 847-962-8951
Email: gkcc1152@gmail.com

글렌뷰 한인 교회
Glenview Korean Covenant Church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성내지 마세요!

어느 날 목사님이 분노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 예배가 끝나자 한 부인이 목사님께 와서 자기가 성질이 너무 급해서 고민이라며 자기 문제를 이렇게 고백한다. "목사님, 저는 작은 일에도 폭발을 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나서는 뒤가 없습니다. 금방 풀어버립니다. 뒤 끝이 없습니다. 비겁하게 마음에 두고 끄고 있고 있지는 않지요. 일본도 안 걸러 툭툭 털어버리고 끝납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그 부인에게 정중히 말했다. "엽총도 그렇습니다. 한방

이면 끝나지요, 그러나 한방만 쓰어도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다 박살나지요." 화가 나는 분은 우선 참아야 한다. 한 노인이 모욕을 당해서 분해하고 있는 젊은이에게 충고를 해주었다. "젊은이, 사람이 모욕당하는 것은 진흙이 묻은 것과 같은 걸세. 진흙은 마른 뒤에 털어야 잘 털린다네. 속상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참게. 화날 때는 일단은 참고 보게. 그러면 일이 쉽게 풀릴 걸세. 만약 참지 못하고 감정대로 행동하면

반드시 후회하고 말걸세." 젊은이는 지혜로운 노인의 충고를 받아들였다. 그랬더니 얼마 안 되어 모욕을 준 사람이 찾아와 사과를 하더라.

살다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즉각각 화를 내기보다는 잠깐 심호흡을 하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주님은 아시지!"하고 중얼거리 보기 바란다. 그러면 전혀 생각 못했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넉넉하게 해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그 분노에너지도 소비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폭언이나 주먹 같은 행동을 참고 억제하면서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했고 잠언 16장 32절에도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고 했다. 또한 성내지 않기 위해서

는 마음에서부터 기록 장부를 없애야 한다. 벴전4:8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했다. 덮는 것이 무엇인가? 기록 장부를 다시 들추어내지 않는 것이다.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저는 여성의 입맛이 무엇인지 몰랐다. 아침에 아내가 갈비를 먹고 싶다고 해서 그런가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집을 나섰다. 그런데 그날 이복 출신이신 권사님 한 분이 날도 더운데 냉면잡수시고 가시라면서 저를 냉면집으로 안내하셨다. 그리고는 냉면은 갈비와 함께 먹어야 궁합이 맞는 거라면서 갈비도 함께 시켰다. 그런데 그렇게 맛있는 갈비를 먹은 것이 평생 처음이었다. 그날 집에 들어가면서 순진한 남편이 '오늘 정말 맛있는 갈비 먹었다'고 얘기했다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내의 매서운 얼굴을 그때 처음 보았다. 그런데 그날도 벌써 십수 년 지났는데도 갈비 얘기만 나오면 여지없이 몇 년도 몇 월

초까지 언급하면서 '마누라는 입덧하느라 그렇게 고생하는데 하면서 그 갈비 얘기를 꺼내어 마음 편히 갈비를 뜯을 수가 없다. 그런데 여자분들 이상한 것은 설교말씀은 아멘 아멘하며 들어도 돌아서기가 무섭게 잊어버리는데 그런 안 좋은 일은 자신의 아이큐를 훨씬 초월한 천재적인 기억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술한 남편들이 죄 짝같이 형사에게 고문을 당하는 죄수가 되고 만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비로소 마음 편히 갈비를 먹기 시작했다. 아마 그 닳고 닳은 장부를 언젠가 찢어버린 것 같다. 가정이나 교회에서 안 좋았던 경험들을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기를 바란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쓰레기통을 다시 뒤적거리지 말아야 한다. 집안에 냄새만 진동할 뿐이다. 우울증 환자의 증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이다. 다 지나가버린 날들 써 십수 년 지났는데도 갈비 얘기만 나오면 여지없이 몇 년도 몇 월

게 당했다 싶은 악한 기억들을 꺼내 들고 다시 분-해하다가 지신 속에 남아있는 긍정의 힘마저 다 소비시키고 마는 것이다. 부부사이에도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다시는 구질구질한 쓰레기통 뒤적거리지 않기로 결심하자. 그 못된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이다. 그 쓰레기통을 뒤적거릴 때마다 내 마음에 더러운 악취가 가득하게 쌓일 뿐이다. 그리고 그 쓰레기통을 다 비워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동에서 서가면 것 같이 흔적도 없도록 다 지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잘못을 기록한 장부를 찢어버려야 내 눈에도 그의 장정과 좋은 점들이 보인다. 여러분 인생의 남은 페이지에는 성내기보다 존경할 만한 좋은 일을 적어가기 바란다. 그러할 때 결코 외롭지 않은 인생이 될 것이고 가정도 화목하여 가문이 일으켜 세워지는 복을 받을 것이다.

푸/른/초/장

허상희 목사
(뉴저지 성도교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만납니다. 역경과 곤경이 있는가 하면 기쁜 일, 즐거운 일들도 있고 함께 웃을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전에서는 트리바에서 목말라 애 태우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르비딴에서는 아말렉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만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지상생활을 나그네로 행인이라고 하였습니다(히11:13).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온 역사는 오래전 구약시대 이스라엘 조상들에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후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하여 40년간 광야여행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처음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는 환희와 감격 속에 들뜬 기분이었지만 얼마 못되어 그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으로 일궈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르비딴의 생수기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의 갈증을 겨우 해결하고 한숨을 돌리려고 할 때 느닷없는 아말렉 군대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시켜 백성을 전투에 나가서 싸울 것을 명하고 자신은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후퇴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큰 돌을 굴러 모세에게 얹게 하고 자신들의 모세의 팔을 양쪽에서 한 팔씩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함에 놀라게도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군대를 쳐서 멸망시키는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피할 길이 없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가 산위에서 팔을 들고 서 있는 동안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들을 진멸하였습니다. 아말렉군을 무찌른 모세는 거기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너시"라고 불렀습니다. 곧 "여호와와 나의 것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르비딴에서 생긴 일을 통하여 한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한 기적을 통해 이 시대 아말렉과 같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믿음생활을 해야 하는가? 아말렉 군대의 침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 인생에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8절은 성도들과 세상과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기치 않았던 아말렉 군대의 공격을 받았듯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기치 않던 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해주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오랜 행군과 목마름으로 인하여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군대를 막아주지 못하고 그대로 침략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

나심을 시험하였기 때문이요. 또한 원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이 지치고 힘들고 목마름의 갈증을 느낄 때마다 얼마나 많이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원망하였던 지난날의 잘못을 돌이키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로 몰아넣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지만 조금만 여유를 갖고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적 있는 여행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빌3:14 사도 바울은 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신앙생활의 여정의 목표가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은 역경과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마침내는 가나안이라는 누구도 들어가지 못한 곳을 들어가기 위한 과정들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생활을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아말렉과 같은 어려움과 시련이 나타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가르쳐주시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외적인 시험을 겪지 않도록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를 지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나" 하는 의문을 갖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이 시험을 극복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에 대한 방법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겨야 합니다.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을 목표로 하고 힘든 광야여행을

통하여 우리를 낮추시고 때로는 시험을 하시는 것은 신8:1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나는 시험과 어려움으로 두렵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군으로 불러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충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승리의 간증자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돌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아가는 길

에는 유형무형의 아말렉 세력이 도전해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깃발 아래 있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롬 8:37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몸 된 교회를 중심으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합시다. 여호와와 깃발을 들고 목적 있는 행진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간증자로 높이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르비딴에서 깨달아야 할 것은 모세는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 여호수아를 장군으로 세우고 다음과 같이 지시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 싸우라"(9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까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모세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당당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와 싸움에 나갈 군사를 뽑아서 '나가서 싸우라'고 지시를 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문제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삶과 환경을 원망하며 지도자가하려는 나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믿음의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모세의 의지이자 하나님의 숨은 뜻입니다.

모세는 "나가서 싸우라"고 행동을 촉구하면서 그 앞에 단서를 붙이고 있습니다. 9절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라는 말입니다.

(9면으로 계속)

제 7 회 청운교회 장학생 선발

청운교회(The Great Vision Church)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우리 자녀들 중 장학생을 선발하여 격려하고자 합니다.

대상

High School Senior, College, Graduate School

자격

일반 장학금: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목회 장학금: 선교사, 목회자 가정의 자녀 및 신학생
LA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

제출서류

1. 신청서 교부 - facebook group "Great vision church scholarship 2014" 에서 다운
2. 본인 에세이 (Letter size 2장 이하)
3. 증빙서류- 일반 장학금: 성적 증명서, 섬기는 교회 담임목사, 혹은 학교 교사 추천서
목회 장학금: 재학 증명서,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 추천서, 출석 교회 주보
4. 수여금액: 대학생(\$1,000), 고등학생(\$500)

접수마감

2014년 8월16일 소인

접수처 및 문의

우편접수 : 청운교회장학위원회 (THE GREAT VISION CHURCH)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90029

장학금 수여식은 2014년 8월 31일(주일) 오후 3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심사결과는 8월 18-22일까지 개별통보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전화문의는 사절하며 접수한 서류는 다시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청운교회
The Great Vision Church (CRC)

담임목사 청빙공고

템피장로교회는 본 교회 담임목사를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1. 청빙요건

- 1)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M.Div)한 목회자중 재미한인 예수교장로회(고신)소속이거나 가입 가능한 목사
- 2) 이중 언어(한국어와 영어)가 가능한 분
-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 4) 5년 이상의 목회경력이 있는 분

2. 제출서류

- 1) 이력서
- 2) 목사안수 증명서,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최종학위
- 3) 신앙 고백서 1부, 목회 철학 및 목회 비전 1부
- 4) 본인, 사모 그리고 가족 소개서(성장과정 및 신앙여정),가족사진
- 5) 최근 6개월 이내의 설교 동영상 2회분

3. 접수안내

- 1) 도착마감 : 2014년 8월 31일(토)
- 2) 보내실 곳 : 템피 장로교회(청빙위원회)
Tempe Korean Presbyterian Church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Email : junpark@cox.net
- 3) 문의 : 청빙위원장 박준 장로(480-235-0908)

* 제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해 드리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45개국어
복음
전도
신문
입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지난 수개월 동안 한국과 세계를 경악에 빠지게 한 세월호 참사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호화 도피 중이었던 소위 구원과 교주 유명인이 사체로 발견되었다. 참사 이후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영적학대(Spiritual Abuse)의 참상을 보게 된다.

‘영적학대’라는 말은 먼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DSM-IV)에 의하면 학대나 방치와 연관되는 문제로 임상적 관심의 초점에 따라, 육체적 학대, 감정적 학대, 정신적 학대, 성적학대, 아동학대, 또는 노인학대로 구분하고 있다. 그 중 영적학대는 영적 지도자가 영적 권위와 그 직책을 사용해서 신뢰와 존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물론 영혼을 상하게 하여 미치는 영원한 영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C. S. 루이스는 “모든 악한 사람들 중에 영적 학대자는 종교적으로 가장 악한 사람들이다” 라고 했다. 영적학대는 내적 생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행실을 파괴함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매우 악한 행위이다. 영적학대는 사이비종교의 특징이지만 우리도 주의해야 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건강한 영적인 지도자들도 교만할 때에 부분적이지만 범할 수 있는 죄이기 때문이다.

영적학대의 증상에 대해서는 Mary DeMuth는 Ten Signs 라는 기고에서 1)사람들로 존경에 대한

지적함으로 잠잠케 한다. 그 외에도 거만함, 보호정책, 그리고 교만들 속에서 통제하려 한다.

VanVonderen 은 영적 학대의 증상에 1)구원의 정의를 왜곡시킨다. 구원 받는 길을 어렵게 높이 올려놓아서 추종자들이 학대자에게 중보와 지혜와 힘을 의존적으로 만든다.

2)영적 학대자인 지도자를 신격화 한다. 마치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부각시킨다. 자신이 신의 대변자이고 신은 자신과 자신의 그룹을 통해서만 일하고, 추종자들은 자신을 따름으로 신을 기쁘게 한다고 세뇌시킨다. 하지만 참다운 지도자는 자신을 결단코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는다.

3)추종자들은 소진되고 고갈된다. 영적 학대자에게 고도의 충성과 끊임없는 요구를 받는 추종자들은 지칠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건강한 지도자는 휴식의 필요와 개인적인 시간의 필요를 안다. 하나님도 7일째에 우리에게 모범

의 배’만을 위하는 영적 학대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고 굴복시킨다.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겉으로 치료하는 척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책망하고 질타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자신들의 달콤한 말로는 죄 문제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지 못한다. 주님은 양의 가족을 쓴 이리를 조심하라고 경고하셨다(마7:15).

왜 이렇게 이단이 활개를 치는가? 어떻게 한국에 이런 이단이 이렇게 힘을 키우고 활개를 펴고 활동할 수 있는가? 부패한 사회에 악은 잘 자랄 수밖에 없다. 짝 볼스 위은 “허용적이거나 방임적이거나 권위주의적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이 이단에 미혹된다”고 했다. 교회나 가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1)쉽게 미혹이 되고 2)교회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이단이 접근하고 3)따뜻한 인간적 현대에 마음이 끌려 이단에 빠진다고 했다.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아



영적 학대 Spiritual Abuse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경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조정하고, 착취하여 실제로는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따르게 하여 영적으로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다.

Jeff VanVonderen은 그의 공동 저서 The Subtle Power of Spiritual Abuse에서 영적학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자유롭게 해야 할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 영적 권위를 남용하여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작하여 길으로는 거북하게 보이지만 사실 자기 자신들을 위한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물론 영적 학대와 거짓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와는 다른 면이 있다. 하지만 둘 다 성도들을 상하게 하고 사람들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게 만드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증상과 처방은 중복이 된다.

영적학대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Ron Enroth은 “육체적인 학대가 육체에 상처를 남기는 것과는 달리 영적학대는 영혼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다”라고 했다. 영적학대를 받은 사람은 고통과 죄책감과 증오와 하나님의 치료로부터 단절로 인해 무기력하게 되고, 좌절과 실망에 빠지게 된다. 심리적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며, 육체적으로는 혈압상승, 피로함과 식욕부진, 수면장애 등 몸의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많은 질병과

왜곡된 생각을 하게 만든다. 존경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다. 하지만 학대자들은 존경이 정직한 생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품처럼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영적 학대자는 추종자들에게 영적 학대자 자신에 대한 충성이 주님께 대한 충성이라고 세뇌한다. 영적 학대자가 주장하는 그 길이 아니면 안된다고 믿게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예수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죄책감을 갖게 하고 괴롭힌다.

3)영적 학대자는 배타적인 언어를 쓴다. 자기들만이 예수를 따르는 유일한 사람이고, 자기들은 모든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도에 지나친 독선적인 생각에 지배를 받는다. 자기들 외에는 모두 잘못되고 오도되고 어리석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미혹된 사람들은 자신들인데 매우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한다.

4)영적 학대자는 두려움과 수치 문화의 문화를 만든다. 그리고 추종자를 거기에 몰아넣는다. 기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자신들만의 말도 되지 않은 규칙을 벗어나면 수치를 주면서 굴종하게 만든다. 실패가 용납되지 않으며 실패하면 재제를 가함으로써 두려움을 준다. 두려움과 수치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죄와 잘못을

을 보이시려고 쉬셨다.

Mike Fehlauer은 Warning Signs of Spiritual Abuse에서 영적학대 시스템의 특징은 두려움을 중심한 시스템이고 또한 거기서 나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다. 두려움과 협박과 회유로 그 집단을 떠나지 못하게 만든다. 영적 학대자들은 자기도취에 빠진 사람들이다. 자신만이 엘리트라고 생각하고, 특별하고, 다르게, 뛰어난 존재라는 착각을 가진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느낌, 자신의 관점만이 유일한 현실이 된다.

그들은 매우 이분적 생각의 패턴을 가진다. 흑백논리, 이것 아니면 저것, 우리 아니면 그들, 선한 것 아니면 악한 것 등으로 대립을 이룬다.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마지막 판단은 성경이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뜻으로 주장하고 믿는다. 모든 대답을 다 가졌다고 주장한다. 이것들은 이단들의 전형적인 특징들이다.

성경은 자기의 배를 채우는 이단적인 영적 학대자들에게 대하여 매우 단호하게 정죄하고 지적하신다. 최고의 영적 학대자는 사단이다. 사단은 영적 대학살 살인자이다. 그를 따르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말할 것도 없다. ‘자기

품에 얼룩진 개인사라고 했다. 결국은 우리 사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 된다. 한국사회는 물질적인 성공만을 바라보고 달려오다가 악을 키우고 결국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이번 유병연의 몰락이 갈려져 나온 또 다른 이단들의 시작이 아니라 국가적인 회개와 회복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동안 밝혀진 것에 의하면 유병연은 돈과 사치와 여자와 권력과 호위부사로 휩싸여서 명품 속에서 살았다. 그가 결국은 매일나무밭에서 홀로 반백골의 상태로 발견되었다. 그가 남긴 것이 무엇인가? 이단 연구가인 김성환 목사는 유병연이 주변에 마지막 유품으로 남긴 것들이 그의 인생을 설명하는 것들이라고 했다. ‘꿈같은 사랑’이란 구원과 교리를 시로 쓴 책, 후반부에는 건강식품에 주력한 인생을 보여주는 스쿠알렌 약병, 그리고 몇 개의 술병들은 허무한 인생을 살고 비참하게 마친 한 죄인의 안타까운 마지막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떠난 이단의 잘못된 영향은 잘못된 교리를 믿고 따른 수많은 영적 사람들에게 영적학대(Spiritual Abuse)의 정도가 아니라 잘못된 교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가게 하는 영적 대학살(Spiritual Massacre)이다.

▲이메일:revdavidkim@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1spc0316@gmail.com

Q: 저는 남편과 같이 교회 생활합니다. 제 남편은 신앙의 지적인 면은 참 좋지만 신앙의 정서적인 면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도 많지 않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나 손을 들고 찬양하자고 할 때도 다른 사람은 손을 다 드는데 남편은 손을 들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다이아몬드바에서 김 집사

A: 예 좋은 질문입니다. 이 문제는 신앙의 이지적인 면과 정서적인 면의 조화를 이룰 때 참으로 건강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1세기 동안 사람들은 IQ가 높아 똑똑한 사람이고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다니엘 퍼먼이라는 사람은 통계적으로 “IQ가 인생 성공에 공헌하는 비율은 많아야 20%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예일대 심리학교수인 페터 셀로비 교수는 “Emotional Intelligence”(감성 지능-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정서적 지능)를 말하면서 “자기감정으로 잘 조절하는 어린이가 자라서 학업성적은 물론 대인관계도 좋고 인성도 뛰어난다면 IQ보다 EQ를 강조하였습니다. 이 EQ는 나중에 EQ(Emotional Intelligence Quotient)라는 말로 대체되었습니다.

사람의 뇌는 두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 뇌와 오른쪽 뇌입니다. 왼쪽 뇌는 주로 IQ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조직적입니다. 그러나 우측뇌는 주로 EQ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예술적이고 정서적입니다. 좌측뇌가 많이 개발된 사람의 장점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상황판

이성적면과 감성적면이 잘 균형 잡힌 신앙생활 필요

단이 빠르고 치밀하고 분석적인 면은 좋지만 자칫하면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비판적이기 쉬운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은 뛰어난데 다른 사람과의 협력관계가 원활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측뇌가 개발된 사람은 감정 관리를 잘하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며 협력하기를 잘합니다. 성격도 낙천적이고 사회적응력이 뛰어납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보통 장로교 그리스도인들은 설교를 들을 때 상당히 분석적이고 조직적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좌측뇌를 많이 사용합니다. 상당히 차분하고 논리적입니다.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도 너무 차분해서 표현을 잘 안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기도할 때 아멘을 잘 안합니다. 찬양할 때 손드는 것, 할렐루야 같은 것은 잘 따라하지 않습니다. 필자도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장로교 교인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서적인 면 즉 우측 뇌를 더 많이 개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따라 해보시면 그것은 우측 뇌를 자극합니다. 한마디로 감성 개발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은 아멘을 잘하고 뜨겁다고 합니다. 목사가 설교할 때 아멘을 잘하고 무엇을 하자 하면 아멘 그렇게 합시다 하고 잘 따르는 교회입니다.

상담자는 과거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 인천에서 하숙하며 공부할 때 부친과 친분이 있는 인천 용현동의 어느 오순절교회에 6개월 정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장로교회에 익숙하다가 오순절교단의 교회에 가보니 예배 찬양 때에 늘 박수를 치고 기도를 통성으로 하는데 얼마나 크게 하는지 교회가 다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귀가 멍멍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다니고는 이 교회는 나하고 체질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그만두려했습니다. 그러나 부친이 전화로 “그래도 좀 더 다녀보아라 분명 네가 배울 것이 있을 것이다”고 해서 좀 더 다녀보니 그들의 은혜를 사모하는 열심, 기도의 열정, 아멘 할렐루야를 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적용이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성적인 면과 감성적인 면이 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On Campus Courses

2014 가을학기 수업 안내

Sept 29-Oct 3(9월 29 -10 월3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6-10 (10월 6-10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 / 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 디자인)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본교 소개 및 특전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자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Off-Campus Courses

Sydney, Australia

• July 28-August 1 (7월 28일-8월 1일)

DI8180 Cross-Cultural Leadership Development / Dr. Bruce Dipple

Los Angeles, California

• Sept 8-12 (9월 8일-12일)

IM 830 Islam/ Dr. Daniel Lute

Seoul, Korea

• Nov 3-7(11월 3일-7일)

IM 830 Islam/ Dr. Todd Bradley

Online Courses (8주간 온라인 강의)

Aug 18-Oct 10 (8월 18일-10월 10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Oct 13-Dec 5 (10월 13일-12월 5일)

DI 8520 World Religions(세계종교)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도호이(Doho)



도호이가족이 가진 다른 이름 '오토다눔(Ot Danum)'은 '강의 상류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이다.

기 사용한다. 오토다눔의 하위그룹 중 4개의 주요 민족은 팔라핀 남서쪽 인도양에 위치한 보르네오(Borneo) 섬에 거주한다.

삶의 모습 오토다눔족은 '다악(Dayak)'으로 알려진 좀 더 큰 종족 그룹에 속한다. 다악이라는 말은 무슬림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을 지칭한다.

사냥 중에 인간의 발자국을 발견했고 그 발자국을 따라다 두 자매를 만나 결혼해 한 커플은 카하안으로 돌아왔고 결국 그 후손들이 오토다눔 종족이 됐다.

리가 있는 옷은 비공식적인 행사를 위해 가끔 입으며, 공식적인 행사 경우에는 감아입는 치마(wrap-around skirts)를 입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지난 시간 동안 오토다눔 사람들은 말레이시아 지배의 테두리에서 학대받아왔다. 그들은 인질 습격 등으로 그들의 많은 땅을 잃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오바마, 동성애자 차별금지 행정명령에 서명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 연방정부와 계약한 민간기업 등이 직장 등에서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동성애자 차별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문제는 이번 행정명령이,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애자 고용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예외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종교단체 지도자들은 지난 1일 오바마 대통령 앞에서 보낸 서한에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는 종교단체를 희생시키면서 특정 그룹에 대한 보호를 확장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미복음주의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 대정부 담당자인 켈런 캐리는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국가의 강제력을 동원하기보다는 종교적 기업에 대한 관용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리더십을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러셀 무어(Russell Moore) 학장은 앞서 열린 '하비로비와 종교 자유의 미래' 세미나에서 "만약 여러분에게 서로를 설득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차이점을 불들이기 위해 싸울 수 있는 권리가 없다면, 이것은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포괄적이고 이보다 훨씬 종교적인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우길 원한다고 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명령이 발효될 경우, 총 2만4천여 업체와

8백만여 명의 고용인이 당사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다.

격추 말레이 민항기 위해 기도를...

세계 교계 단체가 지난 17일 발생한 말레이시아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에 애도를 표하고 세계 교회에 긴급 기도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사고 희생자에는 학회 참석자 여객기에 탑승했던 에이스 연구자 100여명이 포함돼 세계 에이스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세계복음주의연맹(WEA)은 성명에서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폭력적 방법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임을 당한 사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계 미국인 단체 '말레이시아클립인사이드(MCC)'는 이날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분부 사무실 인근 거리에서 추모 기도회를 가졌다.

세계 곳곳에 있는 네덜란드와 말레이시아 대사관 앞에서도 추도 행렬이 이어졌다. 국제에이즈학회 학술행사가 열릴 예정이던 호주 멜버른의 회의장 앞에도 추모 의미를 담은 조화가 쌓였다.

"내 생각과 예수님 생각은 달라"

다국적 온라인 여론조사기관 '유고브'가 최근 미국

인 1000명에게 '합법적 낙태를 지지하는가'라고 물었더니 48%가 그렇다고 답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합법적 낙태를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20%만이 그렇다고 했다.



동성결혼과 사형제, 부자에 대한 과세, 총기 규제, 탄소 배출 규제, 보편적 의료서비스 등에서도 둘 간의 견해차는 확인됐다. 유고브는 "미국인들이 사회이슈에 대해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진보적 사고를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개신교인이 천주교인보다 사회이슈에서 좀 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인의 31%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며 반대 천주교인의 44%가 이를 지지했다.

유고브는 "예수님이 동성결혼을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개신교인과 가톨릭교인은 각각 20%, 32%로 집계되는 등 대부분의 사회 이슈에서 개신교인의 지지 비율이 낮았다"며 "개신교인이 믿는 예수님이 '가톨릭교인의 예수님'보다 더 보수적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독교, 성전환자에 기숙사 거부 정당"

미 교육부가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학생이 기독교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낸 진정을 기각했다고 크리스체너티투데이가 15일 보도했다.

이스 마커스(20)가 대학의 기숙사 사용 거부가 성 평등에 어긋난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대학은 기숙사와 관련해 차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조지포크대학은 마커스가 지난해 여러 차례 수술을 받고 남성성으로 전환한 사실을 알게 되자 마커스에게 기존에 살던 여성 기숙사는 물론 남성 기숙사에서도 살 수 없다고 통보했다.

"기독교인들 개종 아니면 즉각 떠나라"

최근 칼리포르니 부활을 표방하고 이라크 북부를 장악한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반군단체인 '이라크-레반트 이슬람국가(ISIL)'가 '이슬람교인들을 향해 이슬람으로 개종하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20일 AFP통신에 따르면 ISIL은 지난 18일 모술의 한 이슬람사원에서 방송을 통해 기독교인들은 다음 날인 19일까지 모두 떠나라고 발표했다.

ISIL은 교황을 등지는 기독교인들 검문소에 세워놓고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와 휴대전화, 현금, 보석 등을 빼앗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조성근목사 부흥성회 일정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2014 기도성회

- 1월 송구영신, 신년예배 12월 ~ 15일 우리교회(김호경목사)
1월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16월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월 평화의 동산 기도원(피중진목사) 19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0월 ~ 12월 천마중앙교회(김형우목사)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13일 오산리 최자실기별 금식기도원

2

- 3월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10월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0월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7일 ~ 19일 용인 신세계교회(홍우목사)
17일 ~ 19일 성일교회(원승익목사) 20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0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한재신목사)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23일

3

- 1월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0월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0월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성일교회(원승익목사)
14일 성일교회(원승익목사) 17일 ~ 19일 발안 사랑교회(서기영목사)
17일 ~ 19일 발안 사랑교회(서기영목사) 23일 ~ 26일 동은교회(이동효목사)
23일 ~ 26일 동은교회(이동효목사) 30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4

- 3월 칼빈대학교·대학원 채플 7월 ~ 9일 목동감리교회(최현규목사)
7월 ~ 9일 목동감리교회(최현규목사)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0일 ~ 23일 신생중앙교회(김희복목사)
20일 ~ 23일 신생중앙교회(김희복목사)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5

- 1월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월 ~ 4일 사메르 성회(최민하목사)
2월 ~ 4일 사메르 성회(최민하목사) 12월 ~ 15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2월 ~ 15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갈멜산 강화교회(김희복목사)
19일 ~ 22일 갈멜산 강화교회(김희복목사) 25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5일 ~ 28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25일 ~ 28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6

- 9월 ~ 11월 명수대학교(김강덕목사) 15일 주흥교회(최성운목사)
9월 ~ 11월 명수대학교(김강덕목사) 15일 주흥교회(최성운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 29일 LA 나성동신교회(한기형목사)

7

- 1월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월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월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월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8일 25일 드림교회(김여호수목사)
18일 25일 드림교회(김여호수목사)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8일 ~ 31일 갈멜산 강화교회(김희복목사)
28일 ~ 31일 갈멜산 강화교회(김희복목사)

8

- 4월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5일 평화의동산기도원(피중진목사)
4월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5일 평화의동산기도원(피중진목사) 11월 ~ 14일 GST 33rd 신학생훈련
11월 ~ 14일 GST 33rd 신학생훈련 18일 ~ 20일 용인교회(권영호목사)
18일 ~ 20일 용인교회(권영호목사) 21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9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29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9

- 1월 ~ 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월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월 ~ 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월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 16일 말레이시아 KL 중앙교회(이종일목사)
13일 ~ 16일 말레이시아 KL 중앙교회(이종일목사) 21일 ~ 23일 오병이교회(김형우목사)
21일 ~ 23일 오병이교회(김형우목사) 28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013 기도성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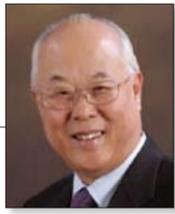
- 1월 송구영신, 신년예배 1월 ~ 3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1월 송구영신, 신년예배 1월 ~ 3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3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피중진목사)
3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피중진목사) 4월 ~ 5일 갈멜산 강화교회(김희복목사)
4월 ~ 5일 갈멜산 강화교회(김희복목사) 6월 ~ 8일 한광교회(차은일목사)
6월 ~ 8일 한광교회(차은일목사) 11월 ~ 13일 천마중앙교회(김형우목사)
11월 ~ 13일 천마중앙교회(김형우목사)

10

- 4월 ~ 6일 일심교회(원승익목사) 10월 창대교회(최용도목사)
4월 ~ 6일 일심교회(원승익목사) 10월 창대교회(최용도목사) 11월 ~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1월 ~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8일 ~ 20일 대전 성남교회(정민영목사)
18일 ~ 20일 대전 성남교회(정민영목사) 24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4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5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5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41)



정성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칼빈주의적 저널리스트

저널리스트의 기본 자세는 보도의 중립이다. 신문인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든 공명정대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립을 지킨다는 것이 모든 신문과 방송이 대내에 내세우는 신문사의 목표라고 한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 이 세상에 모든 사건과 역사를 볼 때 중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기자나 편집인 또는 발행인이 어떤 세계관과 인생관을 갖는가에 따라서 사건과 역사를 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것이다. 기자나 편집인이 인본주의적 세계관을 가졌다면 논설이나 사건 기사를 취급함에 있어서도 인본주의적 세계관의 틀과 안경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아무리 사실 보도를 중립적 입장에서 본다고 해도 정치적 입장이 다르면 서로 다르게 되어있다.

카이퍼는 일간지와 주간지의 편집인이요 논설 주간으로 50년을 일했다. 그러나 그는 분명한 철학과 분명한 세계관을 가지고 19

세기 말의 시대적 상황을 예리하게 분석, 비판하고 칼빈주의적 세계관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므로 질스트라(A.Zilstra) 같은 분은 '저널리스트로서의 카이퍼 박사'라는 논문에서 카이퍼를 가르쳐 '칼빈주의적 저널리스트'(De Calvinistische Journalistiek)라고 결론했다.

실제로 카이퍼는 신문인으로서의 사역은 중노동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저널리즘은 카이퍼에 있어서 예술이고 소명이며 정치였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있는 칼빈주의 사상을 교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종교 등 전 삶의 영역에 평가기준으로 삼았다. 카이퍼는 평생 목사로서, 신학자로서, 교수로서, 정당의 당수로서,

수상으로서의 모든 삶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에서 나왔고 그것은 카이퍼의 글속에서 체계화되고 빛을 발했다.

그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 아니라 성령님의 도구로서(Als Instrument Des Heiligen Geestes)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카이퍼는 저널리스트를 당연히 예언자적인 작업(Dege Profetische Taak)이라고 했다. 즉 저널리스트는 바로 예언자라는 것이다. 저널리스트는 예언자적인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고 했다. 일간지 저널리스트는 예술가인 동시에 영적전사이며 소명자라고 할 수 있다. 참된 기독교적 저널리스트

트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그 자신이 하나님께 부끄럽이 없이 드리는 자여야 한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말씀의 빛 가운데서 볼 줄 아는 시각이 열려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그의 정치적 스승인 흐룬과 같이 그의 투쟁 방식은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역사와 인생과 세계를 보고자 했다. 반혁명당의 지지자 곧 카이퍼의 지지자들은 평범한 보통사람들(Kleine Luyden) 즉 옛날부터 개혁주의 신

앙을 그대로 갖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농업의 위기와 산업화에 의해서 경제적으로 희생양이 되면서 또 지배계급이던 자유주의적 부르주아 계급들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교회와 국가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던 서민대중들이었다. 그들은 모두가 정치적 경제적 약자이므로 종교, 정치, 교육의 자유를 쟁취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제대로 된 조직이 아니었다. 그러나 카이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길을 안내

하고 칼빈주의 사상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스텐다드르를 그 도구로 사용했다.

이들을 정치 세력화 하고 하나의 조직으로 묶여진 것은 이미 19세기 말부터 성경과 복음으로 돌아가려는 부흥운동(Reveil Movement)이 있었다. 이는 스위스, 독일, 화란, 불란서, 스코틀랜드의 작은 무리들의 영적 갱생운동이요 부흥운동이었다. 이를 카이퍼는 말씀과 성령으로 칼빈주의 세계관으로 묶어 갔는데 거기에 바로 저널리스트로서의 역할이 돋보이게 됐다. 화란의 경우는 빌더다익(Wilhem Bilderdijk)과 다코스타(Issac Da Costa)를 거쳐 흐룬 반프린스터에게 전달되었고 카이퍼에게 와서 뿌리가 내리고 열매를 맺었다. 카이퍼가 매일 쏟아낸 스텐다드지의 논설은 그의 신학이며 정치학이고 칼빈주의적 세계관인 셈이다.

결국 카이퍼는 저널리스트이기 는 하지만 철저히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교회와 국가와 민족을 바꾸어가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사후에 스텐다드지에 실린 논설집을 하나로 묶어 300여 페이지의 책이 출판되었다.

(다음호에 계속)

칼빈주의적 세계관 갖고 스텐다드지 논설 통해 사회변화 추구 따돌림 당하던 서민 개혁주의 신앙인들 결속시켜 정치세력화



맨위부터 1872년 창간당시 스텐다드지, 그 이후 1929년, 1940년, 타이틀 모습이 바뀌었다

칼럼 음악목회 (32)

또 하나의 지휘자(3)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음악목회에 있어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나 경배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지휘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음향과 영상을 총괄하는 미디어디렉터인데 이미 지난번 글에서 음향을 담당하는 사람이 예배와 찬양 즉 음악목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는 영상을 담당하는 사람이 예배와 찬양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마다 예배와 회중집회에 갈수록 더 많이 영상장비를 사용하는 추세인데 이는 세상문화가 미디어

와 더불어 스크린문화가 극도로 발전해감에 따른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갈수록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어느 한쪽만 거리를 벗어나면 피사체가 불분명해지고 긴 시간 집중하기 어렵기 때문에 영상장비가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교실같이 작은 공간에서도 눈이 좋지 않은 학생들을 질판에서 가까운 곳, 교실 앞쪽에 앉도록 하는데 교회당은 그 규모에 따라 뒤쪽에 앉는 성도들은 목사님이나 강단에서 사람들 자세를 자세히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예배시간 동안 계속해서 집중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설교자의 표정이나 감성

을 느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인 영상장비의 활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굳이 영상을 담당하는 사람의 전문성에 대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회들이 목회와 사역 그리고 예배행태가 다양하게 발전해가면서 영상목회와 사역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대형화면에 예배실황과 설교자의 설교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의 중요한 부분인 교회광고도 마치 TV뉴스를 제작하듯이 현장을 담아 교회뉴스를 만들어 실감나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한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사역이나 선교현장 등을 모든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협

력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여 전달하는 기능 또한 매우 중요한 영상목회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음악에 관하여는 음향과 더불어 아주 중요한 전달매체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담당하는 사람의 전문성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상 또한 음향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찬양대나 오케스트라 그리고 경배찬양팀과 밴드가 최선을 다해 잘 준비하였다고 해도 영상장비를 통해 스크린을 통해 전달될 경우, 영상담당자에 의해 아주 어처구니없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찬양대 찬양을 영상으로 전달할 때, 찬양곡의 성격 그러니 레가토로 진행되는 부드러운 음악인지 아니면 현대적인 감각의 리드미컬한 음악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음악의 변화가 오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카메라만 대고 있는 것이 영상 담당자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정말 무책임하다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에 따라 영상의 화면이 바뀔 때, 리드미

컬한 곡은 곡의 리듬에 맞추어 바로 바로 꺾이듯이 화면이 바뀌어도 되지만 레가토의 곡은 곡의 흐름처럼 곡의 템포에 맞추어 페이드아웃이 되면서 페이드인이 되어야 찬양을 시청하는 성도들이 감각적으로 안정감 있게 그 찬양을 받아들이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양곡이 때로 곡 중간에 독창이나 중창이 나옵니다. 카메라를 잡고 있는 사람은 영상감독자 PD의 지시를 받고 있겠지요. 찬양대 찬양이 진행되는 중간에 독창이 시작되었는데 카메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찬양대원 얼굴을 크게 잡고 있다가 뒤늦게 독창자에게로 카메라가 돌렸습니다. 그 때는 이미 독창은 끝나고 찬양대 전체가 합창을 하고 있는데 카메라는 독창자만 한참동안 포커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찬양곡 중간에 반주자의 간주가 연주됩니다. 그러면 부랴 부랴 반주자에게 카메라를 돌리면 이미 간주는 끝나고 합창이 시작됩니다. 합창이 진행되는 동안 피아노 건반과 반주자의 손가락만 한참동안 찍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찬양

곡이 절정에 와 곧 종지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개개인 찬양대원 얼굴을 크로즈업 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부랴 부랴 전체화면을 잡지만 전체화면을 잡자마자 찬양은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영상이 없었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그렇게 정신없이 헛갈리게 찬양을 시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반복되는 이런 실수를 막아보고자 저는 이렇게 시도해보았습니다. 영상담당자에게 약보를 드리면서 전주가 몇 마디인지 그리고 독창이나 중창이 시작되었다가 끝날 때, 중간에 간주가 있을 때, 마지막 절정이 어디인지 알려드리곤 했지만 음악에 대한 상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은 극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음악을 모르면 찬양대 연습시간에 참석하여 리허설을 하는 열정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 차세대연구소: (714)699-0210

2014년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예수의 사랑공동체" 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립된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제13회 뉴라이프교회 장학생을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응모자격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 민족으로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춘자.
- 현재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대학원과정은 최소 8학점, 학사과정은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GPA가 B 이상이어야 함.

선발인원 12명: 각\$1,500

제출서류 1. 신청서(본교의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www.NLChicago.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앙 간증문 및 비전(2페이지 이하)
3. 담임목사, 지도목사 혹은 지도교수 추천서 2부
4. 성적 증명서

응모마감 2014년 10월 15일
수여자 발표 2014년 12월 1일, 본 교회 홈페이지에서 발표됩니다
신청서류 보낼곳 New Life Church of Chicago Scholarship Committee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본 장학생 모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먼저 본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고, 이메일(scholarship@nlchicago.org)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NLChicago.org
NewLife@NLChicago.org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T. 847-359-5200 F. 847-359-8409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본인구독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 사
영 어: _____ 평 신도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 어 _____
전화번호/Fax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년 월 일 _____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창조과학 칼럼 (197)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5) 목적물

아무 제한이 없는 경우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만 흐르고,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 아무리 견고하게 지어진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가장 튼튼한 자동차라 해도, 단단함의 대명사인 바위라 해도 시간이 지나면 철거되고, 폐차되고, 마모되고 만다.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완벽성을 자랑할 수가 없다. 사람의 생체정보인 유전정보도 마찬가지로 심지어 언어와 같은 비물질적인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무질서해진다. 한정된 우주 안에서는 이런 법칙이 언제나 적용되고 있다. 과학자들은 이 절대적인 법칙을 열역학 제 2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점점 낡아지고 무질서해지는 우주적인 열역학 제 2법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유일한 존재가 있다. 바로 생명체들이다. 생명체들은 무질서나 낡아짐과는 정반대로 점점 질서를 잡아나감으로써 새로워지고 성장하게 된다. 생물들은 스스로 점점 자라감으로써, 무생물들과는 완전히 다른 기적적인 존재임을 드러내

났다고 믿는 것은 결국 기적이 일어났다고 믿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의 믿음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진화론자들은 열역학 제 2법칙을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생명체

는 햇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빠르게 분해되어 그 성분들이 더욱 무질서해진다. 죽은 나무도 태양으로부터 똑 같은 에너지를 받는데 왜 진화론자들의 주장과 반대로 오히려 무질서도가 증가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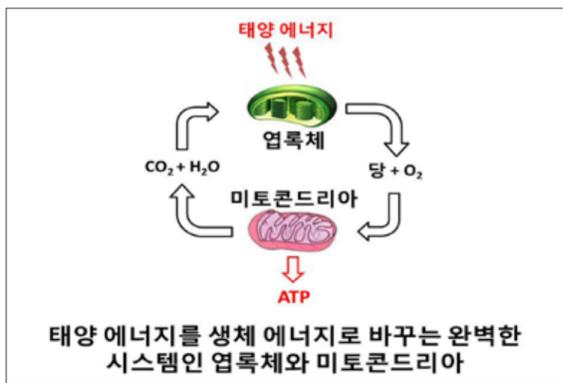
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어있다. 엽록체가 받아들인 빛 에너지는 물과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당분을 만드는 과정에 사용되고 부산물로 산소도 만들어낸다(그림). 생성된 당분은 고정된 햇빛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분해될 때 산소를 소비하며 생체가 필요한 에너지인 ATP를 만들게 된다. 이때 엽록체에서 고정되었던 이산화탄소와 물이 다시 만들어져 공기 중으로 배출된다. 다른 어떤 손실도 없이 물과 이산화탄소를 매개로 빛 에너지만 생체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완전한 시스템이다.

물과 이산화탄소에서 시작하여 당분이 되었다가 다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엽록체-미토콘드리아는 완벽한 시스템이다. 이런 완벽한 시스템이 저절로 형성될 수 있을까? 더욱이 이 시스템 자체도 간단한 것이 아니다. 햇빛 광양자(Photon)를 포획하는 장치만 해도 상상을 초월하는 물리화학이 들어있다.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의 구성성분만 분석해도 과학자의 지혜와 능력을 넘어

모든 생명체부품엔 목적물 있지만 물질 자체엔 없어 생명체 속에만 있는 목적물은 하나님의 존재 확신케

고 있다. 물론 생물의 성장과정에도 생물이 존재하는 환경과 함께 보면 열역학 제 2법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물질을 사용하여 건물을 짓거나 기계를 통해 질서가 잡힌 물건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에너지가 투입되어 질서가 잡힌 나중 상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투입된 에너지의 총 양보다 적다. 이 에너지의 차이만큼 무질서해진 것이다. 생명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한 생명체가 자라가면서 질서도가 더 커질 수 있는 것은 특별하게 의도된 에너지가 투입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환경 전체의 무질서도는 증가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질서를 만들고 성장하는 생명체는 우주에서 가장 경이로운 물체가 아닐 수 없다.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놀라운 생명체들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간단한 물질들에서부터 시작하여 세포에 필요한 부품들이 우연히 만들어지고 우연히 조합되어 세포가 만들어지고, 세포가 수억 년 동안 진화하여 지금의 생명체들이 존재하게 되었다고 믿는다. 이 믿음은 무질서의 법칙인 열역학 제 2법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고도의 질서를 가진 생명체가 물질의 법칙을 위반하고 스스로 생겨



가 생겨날 수 있다는 근거를 끌었는데 태양 에너지의 공급에 근거한 설명을 하려고 시도한다. 지구는 계속해서 태양으로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받고 있으므로 그 에너지를 이용해 질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과학적 사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다음 예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뜨거운 사하라 사막에 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한 나무는 말라 죽어 무생물이 되었고 다른 한 나무는 물을 공급받아 지금도 살아 있는 생물이다. 죽은 나무와 살아 있는 나무는 태양으로부터 동일한 양의 에너지를 받는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살아 있는 나무는 더욱 성장하겠지만 죽은 나무

무생물에는 없는데 생명체 속에만 있는 신비한 그 무엇이 있는데 과학자들은 그것을 목적물(Teleonomy)이라고 부른다. 살아 있는 나무나 죽은 나무가 가지고 있는 화학성분은 같다. 그렇다면, 살아 있는 나무가 햇빛을 받아 성장하는 것은 죽은 나무에는 없는 특별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이 생명체로 하여금 무질서해지게 하는 힘을 거스르고 질서를 증가시켜 자라나게 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생명체 속에는 태양에서 오는 빛 에너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의도(목적)와 기능이 들어있다. 엽록체라고 하는 기관이 바로 그 차이의 일부다. 엽록체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들여 사

서는 것들이다. 하물며 이것들이 각각 조립되어 두 시스템이 긴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움직이도록 디자인되어있는 모습을 보고 저절로 생겨났다고 주장하는 믿음은 과학 법칙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각각의 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만들어져있는 것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생명체의 부품들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목적물). 그러나 물질 자체에는 목적물이 없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은 과연 어떤 지적인 존재가 물질에 목적물을 집어넣어 생명체가 되게 하였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진화론이 말하는 장구한 시간이 생명체의 부품들 속에 이 목적물을 차례대로 하나씩 집어넣어 생명체가 되게 한 것인가?

성경은 예수님을 생명체라고 한다(요14:6). 만물이 그로부터 왔다고 한다(요1:3; 골로1:16). 생명이며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체 속에만 목적물을 삽입하였다는 설명이야말로 열역학 제 2법칙을 이기고 살아가는 생명체들의 존재를 가장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창조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이메일: mailforw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성서교회)

암흑에서도 심지 굳은자에게 열리는 기상천외의 길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그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시니라”(출1:12, 20, 21).

누를수록 번창하는 이스라엘과 창성하는 저들을 학대로 맞서는 애굽인들입니다. 인간은 외적 환경이 열악 할수록 생존본능 때문인지 강해집니다. 힘이 들수록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여러 면에 철이 들고 바른 길을 갑니다. 세상에서 가진 자들이 황포는 동서고금 시대를 막론합니다. 단지 고통이 힘들다는 이유로 하나님은 고통스런 상황을 쉽사리 없애주시지는 않습니다. 순간의 고통을 면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고통스런 순간만 쳐다보면 공장 마음은 지옥행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고, 나의 고통을 외면하는 듯한 하나님이 너무나 서운하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인생을 긴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떤 집을 지어가시는지 분명히 보입니다. 공사 중인 벽 한 면을 보면 집의 전체 모양을 잘 알 수 없지만 내 인생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주님의 집으로 짓고 계신 그분의 계획을 믿고 묵묵히 벽돌 한 장 하나하나를 쌓아보면 어느 샌가 멋진 집이 완성됩니다.

세상적인 욕망은 질기고 강하여 빠픈 고통이 와야만 손을 놓습니다. 400년의 노예생활에 익숙해져 극기의 압박이 아니고 해방에 대한 절대 목마름이 생기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단련하여 주님의 마음을 알아듣도록 도와주시곤 순복하는 저들과 함께 천국 확장의 대사업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들을 지혜롭고 담대하게 하시어 하나님은 이스라엘 번성의 약속을 이루어가십니다. 억압을 당하는 이스라엘에게 많은 아기들을 살려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 없는 산파들이 있습니다. 사내아이가 낳으면 죽이게 되는 모진 상황에서 끝까지 숨기다 물에 떠 보내는 레위 여인 요게벳도 있습니다. 바로의 건져 모세라 부르고 엄마인 요게벳이 유모가 되는 기적적인 상황도 만드십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악한 명령을 내린 바로의 딸을 움직여 모세를 건지시기도 하는 하나님의 구원 솜씨같이 절묘하게 기상천외의 길을 내시기도 하십니다. 명령을 내린 적의 가장 소중한 사람의 불순종을 통해서입니다. 불순종은 불순종의 배반이 주님을 향한 순종의 응답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의 인생 퍼즐 맞추기가 절묘하기만합니다. 평소에는 믿음이 있다하지만 조금만 바람만 불려대도 마음은 불신의 폭풍소리가 아우성을칩니다. 바람이 심해져 강풍이 되면 너무 쉽게 살 소망을 접어버리는 우리의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절망은 하나님에 대한 최대의 불신이며 모욕입니다. 험악한 조건이라 길이 없어 봐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은 길을 반드시 내주십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신뢰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사람이 살 길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청사진! 빈 공간을 주님의 모습으로 채워가는 멋진 인생! 내게서 악매인 세상 사람의 모든 찌꺼기를 털어버리게 되면 오직 주님의 형상으로 가득 채워진 빛나는 삶이 됨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주님, 당신과 함께 합이 우리의 복이고 영광입니다. 나로 무지하여 불평에 찌든 노예근성 바로의 자리에 결코 앉지 않도록 하시고, 쓰임받되 하나님과 합하는 당신의 사람으로 쓰임받길 사모합니다. 분명 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드러내고픈 것이 당신의 뜻입니다. 오늘도 여기고 폭풍이 몰아치는 대로 흔들리는 정함 있는 심지를 굳게 잡아주시어 놀라운 평강을 내려주소서.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목회서신

균형 감각



문병용 목사 (유니온교회 담임)

고층 빌딩 사이에 연결된 동아줄 위로 걸어가는 곡예사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진땀이 납니다. 저러다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앞섭니다. 높이 걸려있는 외줄에서 조금이라도 실수

하면 곡예사는 살아남기 힘들습니다. 외줄 타기는 엄청난 훈련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체력도 좋아야 됩니다. 하지만 곡예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 감각이 없으면 줄을 탈 수 없

습니다. 훈련이나 체력이나 기술도 균형 감각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곡예사가 혼자 걷기도 힘든 상황에서 긴 장대를 가지고 줄을 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 필요도 없는 것을 왜 들고 가?' 할지 모르

나, 그것도 균형을 잡기 위한 것입니다. 무겁고 긴 장대가 균형을 잡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균형을 잃으면 무너집니다.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솔로몬 왕과 스바(Sheba) 여왕 사이에서 유래하는 왕조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에티오피아의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그를 방문한 이야기가 나옵니다(왕상10:1-13). 성경에는 없지만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을 때 솔로몬의 아기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황제가 되어, 이후로 왕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셀라

씨에(Haile Selassie 1892-1975)는 자신이 솔로몬-스바 왕조의 후예라고 주장하면서 1930년에 에티오피아 황제가 되었습니다. 경제개혁과 사회개혁을 하고 노예제도를 법으로 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삶에 균형을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궁전에 있는 개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데 반해 대부분의 백성들은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군부에 의해 축출 당했습니다. 균형은 잃은 사회는 쓰러지게 됩니다. 혁명은 균형 잃은 사회에서 일어납니다. 균형 잡힌 사회에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쪽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 쪽이

전혀 가진 것이 없으면 균형은 깨어집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진 것을 서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나누는 것은 단순한 자선행위가 아니라 서로 공존하는 길입니다. 재물 뿐 아니라 지식이나 재능이나 경험이나 무엇이든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복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됩니다. 나누어줄 수 있는 사람은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 나누어주는 것으로 유명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제2회 햇불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175개국 1500명 참석... 아틀란타 정인수 목사 특강 및 설교

기독교선교햇불재단(이사장 이형자 목사)에서 주최한 제2회 햇불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가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양재 햇불선교센터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됐다. 선교대회는 한국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를 연결시키고, 선교동원과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을 목표로 열렸다.



햇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세계선교대회 모습

이번 선교대회에는 미국을 비롯해 중국과 멕시코, 가나와 독일 등 전 세계 175개국에서 흠어져 살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1,500여 명과 전국 햇불교회 교인 2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됐다.

대회 첫날 30개 나라의 국기 입장으로 시작된 선교대회는 이 시대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비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예배와 말씀이 이어졌다. 대회사를 통해 이형자 대회장(이사장)은 "현재 750만여 명의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 175개국에 흠어져 살고 있다. 한민족은 130여 개국에 퍼져 사는 중국인이나 100여 개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보다 세계 곳곳에 더 넓게 퍼져 살고 있는 민족"이라며 "하나님께서 한민족을 사용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려 하신다"고 전했다.

을 통해 소감과 비전을 나눴다. "나 자신도 31년 전 한국을 떠나 사는 디아스포라로 이러한 자리에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우리 민족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나누게 되어 감격스럽기만 하다"고 운을 뗀 정목사는 "하나님은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통해 세계선교의 전략적인 교두보를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러므로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보기 드문 타문화 선교의 체질로 우리 민족의 DNA를 바꾸어 놓으셨다"고 현대의 한인 디아스포라를 진단했다. 또 "재의 동포는 이미 타문화 적응훈련이 이뤄진 상태로 동시에 학력과 언어구사능력을 갖춘 고급선교인력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세, 3세대들을 훈련시켜 한인사회 바깥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디아스포라 선교사로 파송해야 할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이번 디아스포라 집회에는 국제로잔운동 총재 마이클오(Michael Oh) 목사, YWAM 창시자이자 열방대학 총장 로렌 커닝햄 목사가 주강사로 메시지를 전했다. 통역은 이용조 목사(갈보리교회 담임)와 진재혁 목사(지구촌교회 담임)가 맡았다. 그 외에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정성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최순영 장로가 강연하고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김종필 목사(한얼의밀알교회), 김춘근 교수(JAMA 대표)가 강연하고, 다니엘 박 부부가 각종의 시간을 맡았다. 특별히 루이스 부시 목사, 임현수 목사(캐나다큰빛교회), Ruriko Bohman 부부가 함께했으며,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정인수 목사, 이영환 목사(한밭제일교회),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그리고 이형자 이사장이 폐회사를 전한 후에 파송식을 한 후 5일 동안의 대장정이 마무리 됐다. (기사제공: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또 "이번 대회를 통해 디아스포라들은 민족적 정체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게 하신 신앙적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디아스포라들은 한국교회와 형태·자매가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함께 나아가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세계 복음화라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자기가 낳고 자란 곳의 선교사로 헌신하는 비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별히 이번 대회에 참석한 미주 대회회장이자 특별강의, 폐회예배 설교를 맡은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정인수 목사는 '한 자리에 모인 지구촌 한민족 디아스포라'라는 칼럼

를 통해 소감과 비전을 나눴다. "나 자신도 31년 전 한국을 떠나 사는 디아스포라로 이러한 자리에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우리 민족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나누게 되어 감격스럽기만 하다"고 운을 뗀 정목사는 "하나님은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통해 세계선교의 전략적인 교두보를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러므로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보기 드문 타문화 선교의 체질로 우리 민족의 DNA를 바꾸어 놓으셨다"고 현대의 한인 디아스포라를 진단했다. 또 "재의 동포는 이미 타문화 적응훈련이 이뤄진 상태로 동시에 학력과 언어구사능력을 갖춘 고급선교인력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를 통해 소감과 비전을 나눴다. "나 자신도 31년 전 한국을 떠나 사는 디아스포라로 이러한 자리에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우리 민족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나누게 되어 감격스럽기만 하다"고 운을 뗀 정목사는 "하나님은 한민족 디아스포라를 통해 세계선교의 전략적인 교두보를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러므로 세계 어느 민족에게도 보기 드문 타문화 선교의 체질로 우리 민족의 DNA를 바꾸어 놓으셨다"고 현대의 한인 디아스포라를 진단했다. 또 "재의 동포는 이미 타문화 적응훈련이 이뤄진 상태로 동시에 학력과 언어구사능력을 갖춘 고급선교인력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한동대학교 홍보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한동대학교 홍보 기자간담회 영문책 출간 김영길 전 총장, 장순홍 총장 참석

한동대학교 전 총장 김영길 박사의 저서 "신트로피 드라마"(영문판) 출간 및 한동대학교 홍보 기자간담회가 18일 오후 3시 두란노서원 3층에 마련된 기자회견실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한동대학교 전 총장인 김영길 박사와 현 총장인 장순홍 박사가 참석했다. 한글판에 이어 영문판으로 출간된 "신트로피 드라마"의 저자이자 한동대 초대총장인 김영길 박사는 "엔트로피의 반대개념인 신트로피는 무질서에서 질서로 향하는 상태를 뜻하며 엔트로피에서 신트로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영길 박사는 "이번 영문판 출간이 한국어가 서문 1.5세와 2세 젊은

층에게 직접적이며 효과적으로 많은 깨달음을 주기를 바란다"며, "미주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갖고 깨달음을 얻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영길 박사는 서울대 금속공학과와 미주리 주립대 금속공학 석사, 뉴욕 RPI공대 재료공학 박사를 취득한 뒤 미 항공우주국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1995년 '세상을 바꾸자'와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슬로건으로 개교한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19년 간 재임하며 1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김영길 박사에 이어 2대 총장을 맡은 장순홍 한동대 총장은 "기존의 대학들과 다르게 순수한 기독교 정신의 전문교육을 표방하는 한동대

학교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며,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받았다. 장순홍 총장은 "한동대에는 두 가지 도전이 있다. 하나는 신앙적 도전, 두 번째는 신앙인으로서 잃어버린 세상의 영역의 회복"이라 언급했다. 장 총장은 "한국의 젊은 크리스천들은 4%에 불과하다. 이는 좋은 신앙에 바탕을 둔 상태에서 인성과 영성이 결합된 좋은 학생 배출해야 하는데 크리스천들의 감소 현상으로 인해 기독교가 약화되고 있다. 이는 젊은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도전이며 이는 지금보다 더 신앙적인 학교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 말했다.

경상북도 포항에 위치한 한동대학교(http://www.handong.edu)는 국제어문학부, 경영경제학부, 법학부, 생명과학부, 산업정보디자인학부 등 학부뿐만 아니라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 전문대학원 등이 개설돼있다. 또한 영주권 및 시민권자, 1.5세로 초중고등학교를 미국에서 다녔지만 유학생 신분인 학생들을 위해 특별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선발은 한국의 학생들이 응시하는 일반전형과 별도로 정월 외로 선발하게 되며 자세한 선발기준은 한동대학교에 문의하면 된다.

▲문의: admissions@handong.edu (박준호 기자)

푸/른/초/장

〈4면에서 계속〉 이 말은 싸움을 하러 나가되 모든 백성들이 다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택하여 나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먹구구식으로 싸우지 말고 훈련되고 연단된 자를 택하여 싸우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삼만이전명 중에 300명의 용사들로 준비하여 미디안 군대 십삼만 오천명을 무찌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기적이 일군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했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영적 행동이 필요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그리스도인이다워야 합니다. 구별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을 택하여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가

르쳐드립니다.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입니다. 10절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한 것입니다.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훈련된 일군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싸우는 동안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받쳐주며 전성일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게 하였습니다. 교회가 마귀의 세력과 대적할 때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여 일사불란한 행동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렘33:1-2) 하나님께서는 그가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부르짖을 때 우리 앞에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력 군대를 기도로 물리칠 수 있었던 능력의 손을 내가 다시 회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속에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그러면 원망, 불평, 미움, 낙심, 떠나고 싶은 마음, 번민, 방황 등이 소송돌이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사명감을 붙들고 기도하며 감당할 만한 믿음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일군이 되겠습니다. 앞서 나가 싸우겠습니다. 많은 간증이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부르짖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음부의 권세에 짓밟혀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패배감과 원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안됩니다. 주위에서 어떤 모함과 조롱과 핍박과 원망이 다가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기도하면 아말렉을 물리쳤듯이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손은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 체임의 손, 아픔의 손, 나 버림의 고통을 경험한 손일 때에 그 손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지도자들은 더욱 말씀을 무장하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장소에 올라가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많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앞서 나가 싸우는 일군이 많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며 기도의 손을 잡아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는 기도의 손을 든 자의 인생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함께 기도의 손을 들고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승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 신임회장에게 선출된 노석 목사가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베데스다대 총동문회장에 노석 목사 21일 정기총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문회로"

베데스다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최명상 목사)가 21일 오후 6시 베데스다대학교(총장 송영준 목사) 채플실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회장에 노석 목사(엘파소 안디옥순복음교회 담임)를 선출했다. 노석 목사는 "18년째 텍사스 남쪽 엘파소에서 목회하기에 총동문회 일에 참석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모교의 총동문회장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주신 사명으로 알고 순종하며 감당하려고 한다. 베데스다 총동문회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쓰임 받는 동문회가 됐으면 한다. 동

문들이 단합하고 격려해 이민목회 현장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며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명상 총동문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정기총회는 개회선언, 회순통과, 회원점명, 기록서기 임명으로 이어졌으며, 김지연 회계의 2013-14년 재정보고에 이어 회장 선거를 했다. 신임회장에는 단독 출마한 노석 목사가 선출됐다. 한편 총회 전에 드린 예배는 최창수 목사(총무)의 사회와 그레이스선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 백석영 목

사(감사) 기도, 김훈 목사(전임회장)가 설교했으며, 김효인 베데스다대학교 학생처장의 학교근황소개가 있었으며 임용철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샌버나디노 울타리선교회 주최 삼국 VBS가 올리브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인종 민족 초월... 샌버나디노 울타리선교회 VBS

샌버나디노 울타리선교회(담임 이용범 목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한인교와 히스패닉, 흑인 어린이들이 지난 19일부터 4일간 함께 모여 VBS를 진행했다. 본 성경학교는 올리브장로교회(담임 강신형 목사) 교육부에서 주관한 것으로 예배와 율동 찬양, 게임 등을 통해 주안에서 하나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설교

는 EM목사인 백흥렬 목사, 진행 전항기 집사가 맡았으며 점심식사는 울타리선교회와 박갑성 집사가 담당했다. 울타리선교교회는 흠리들을 위한 사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마다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 말씀을 전하고 있다. (기사제공: 울타리선교회)

동부교계 기사판



제9회 뉴욕 크리스천 영상제

뉴욕장로교회(담임 이승환 목사) 청년부 문화사역부가 주최하는 제9회 뉴욕 크리스천 영상제가 12월 6일(토) 열린다.

▲문의: 이메일 nypc.filmfestival@gmail.com

뉴저지 실버미션스쿨 개강

뉴저지 22기 실버미션스쿨이 가을 학기를 개강한다. "선교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주제로 8월 11일부터 10월 27일까지 12주간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열린다.

▲문의: (732-225-7337) 총무 이호영 장로



엘림경로센터 초복 맞아 삼계탕 대접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 엘림경로센터에서 초복이었던 지난 18일 화일 어르신들에게 영양 삼계탕을 대접했다.

마음 통증병원(42-14 162st) 김성식 원장이 직접 방문하여 후원금 500달러를 전달했다.

(기사제공: 엘림경로센터)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6회기 출발

미주여성목회자협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전희수 목사)가 지난 21일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을 갖고 제6회기를 출발했다.

2년간 회장직을 수행했던 이미선 목사는 "친구 동역자들을 만난 것이 가장 기뻐다"며, "모이기를 힘쓰자, 실력을 갖추자"고 강조하고 "새 회장을 중심으로 사랑으로 연합하고 아름다운 협의회로 계속 부흥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희수 신임회장은 "자기백성을 위한 구원한 에스더처럼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에4) 말씀을 붙잡고 출발하려 한다"며 "회원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연단과 훈련의 길을 가고 있다.

이날 발표된 새 임원들은 다음과



미주여성목회자협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같다.

△회장 전희수 △부회장 장경혜 △총무 김정숙 △서기 권캐더린 △부서기 장만자 △회계 조상숙 △부회계 김순자 △지역협동총무: 뉴욕 교역부 김순자 △지역협동총무: 뉴욕 교역부 김순자 △지역협동총무: 뉴욕 교역부 김순자

취임식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회장 장경혜 목사 인도로 기도 이승진 목사(교육분과), 성경봉독 조상숙 목사(회계), 특송 미주한인여성목회자 살렘합창단, 말씀 김승희 목사(뉴욕교협회장), 헌금 첼로연주 김수경 목사, 봉헌기도 양승인 목사(필라델피아 총무), 축도 김에스터 목사(전 뉴저지지역 총무)의 순서로 진행됐다.

뉴욕장로연합회 목요기도회 성료

대뉴욕지구장로연합회(회장 정권식 장로) 목요기도회가 지난 17일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 예배실에서 열렸다.

설교를 맡은 박성원 목사(뉴욕풍성교회 담임)는 "날고 죽었다"(창5:1-3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성원 목사는 예복과 같이 장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소외된 이웃의 아픔을 안아주고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뉴욕장로연합회의 사역이 되기를 바란다

를 바란다"고 말했다. 예배는 김영창 장로의 사회로 대표기도 정덕상 장로, 설교 후 특별기도는 △주신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배상규 장로 △다민족선교대회(축제)를 위하여/이계훈 장로, 헌금특송 이보춘 장로, 헌금기도 손성대 장로, 축도 박성원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순서로 조찬을 나누며 임원회의를 했다. 특히 오는 8월 24일(주) 오후 5시



뉴욕장로연합회가 뉴욕나눔의집에서 목요기도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후러시제일교회(담임 장동일 목사)에서 개최되는 제2차 다민족선교대회(축제)를 위한 행사준비 상황

점검하며 의견을 나눴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뉴욕나눔의집 사역 활발

백복희 선교사, 지난 한달반 동안 치유 사역

2년간 노숙인 70여명 경유... 마약, 알코올, 도박 끊고 직업 찾아

유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 6월 16일부터 사흘간 집회를 통해 치유사역을 시작한 백복희 선교사는 이후 한달 반 동안 개개인을 상대로 치유사역을 펼친다. 하루 2-30명씩 기도를 해주고 있다고 밝힌 백 선교사는 "나눔의집

을 방문하는 분들을 주님이 보내 주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한 생명 한 생명 귀하게 여기신 주님의 마음이 전해져 최선을 다하고 있다"

르치지 않아 가슴이 아프다. 성경 중만이 아니고 마귀로 중한한데 마귀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오지만 몸이 아프다. 영적 문제를 치유하면 몸은 저절로 치유된다. 오래된 질병은 자신의 기도와 찬양으로 치유되지 못한다. 은사 받은 사람을 통해 치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성원 목사와 백복희 선교사(가운데), 동역하는 김효순 목사.

을 인용했으며, 이 책에서는 성경에서 이뤄지는 사건들을 이뤄지게 하심을 알게 된다. 백복희 선교사는 오는 28일 뉴욕 사역을 마치고 LA로 돌아간다.

한편 박성원 목사는 뉴욕나눔의집에서의 백 선교사 사역을 소개하며 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받았다고 말했다. 백 선교사의 치유를 받은 후 성도들이 한 헌금은 뉴욕나눔의

집 후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박성원 목사(뉴욕풍성교회 담임)는 지난 2년간 70여명의 장단기 노숙인들이 다녀갔으며, 처음에는 장기노숙인들 10여명에게 예배와 교육을 실시했는데, 장기거주에 따른 부작용들이 많아 현재는 가능한 한 기간을 정해 교육하고 직업을 찾아 나가게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물론 그들에게 신앙도 심어주고 회심자에게 세례도 베푼다. 박 목사는 "노숙인 중에 의외로 고학력자가 많다. 이들에게 브릿지 역할을 해 하나님을 영접하고 알코올과 도박, 마약에서 벗어나 직업을 찾아 정상인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뉴욕나눔의집에 대한 후원을 당부했다. 후원문의는 (718)683-8884로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Large directory of churches including: 동부(NY, NJ) 교회, 뉴욕갯세마네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뉴욕새사목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뉴욕중부교회, 뉴욕초대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링킹스톤교회, 롱아일랜드성결교회, 선한목자교회, 에벤에셀선교교회, 에사라교회, 주비전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링킹스톤교회, 링컨한인교회, 한마음침례교회, 브라질 새소망교회,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토론토 가든교회,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하와이 행복안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하나님께 영광...복음전파 선교에 앞장

CBS기독교 FM 107.5 HD2 개국예배

FM 107.5 HD2 CBS기독교 FM(대표 최영일) 개국예배가 17일 오후 6시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열렸다.

최영일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남가주에서 CBS기독교 FM방송국이 개국할 수 있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60년 방송역사와 한국라디오 청취율 1위를 자랑하는 CBS가 미주 지역에 함께 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선명하고 고음질로 한인사회에 희망과 기쁨 전해지는 새로운 차원의 방송하게 된다. 정직하고 공정한 방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명인 복음전파와 선교에 앞장설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성원 바란다”고 말했다.



CBS 기독교FM 개국예배를 마치고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를 통해 “CBS는 1954년에 개국한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방송이다. 미주지역에 신속한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방송에 임할 것이다. 미주지

역을 위한 컨텐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CBS기독교 방송이 남가주에 자리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권영국 목사(대흥장로교회 담임, CBS기독교FM 자문위원)의 사회로 시작된 축하행사는 최영일 사장의 인사말, 이재천 사장(한국CBS사장)이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했으며, 송구식 목사(OC교회 부회장), 김현명 LA총영사, 제임스안 LA한인회장, 전영식 CBS America 사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어 고문, 자문위원, 운영위원 위촉식을 가져 박희민 목사에게 고문 위촉장을, 김요섭 목사에게 자문위원 위촉장을, 그리고 김경무 장로에게 운영위원 위촉장을 전달했다.

축하행사에 앞서 드린 개국예배는 권영국 목사 사회로, 최성근 장로(CBS기독교 FM 고문)이 기도를, 이경호 목사(영생장로교회 음악)가 특별찬양, 박희민 목사(CBS America 이사장)가 “크리스천 매스컴의 사명”(딤후4:1-5)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최아바람 목사(UCS 학장)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 제1회 CCM 페스티벌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서병호 장로) 주최 제1회 CCM 페스티벌이 27일(주) 오후7시 KCCC 소극장(1636 W 8th St, Suit #205)에서 열린다.

▲문의: (626)780-5131 랜디김

더텐트 파킹랏 콘서트 7월 공연

더텐트(대표 다니엘방 목사)의 파킹랏 콘서트가 26일(토) 오후 8시 가주영여학교 주차장에 마련된 특별무대에서 열린다.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콘서트는 랜디김 밴드, 조영석, 이정열, 백수진, 최제량 등이 출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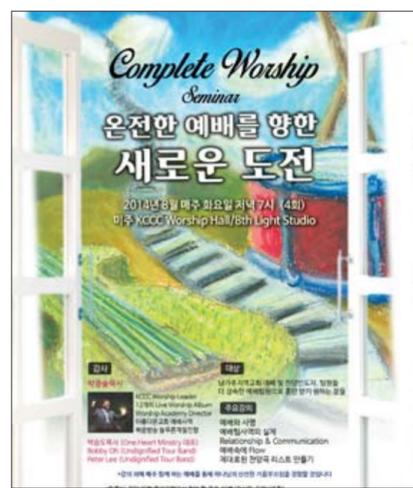
▲문의: (213)223-7623, 999-4909

KCCC Complete Worship Seminar

8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총4회

KCCC는 ‘온전한 예배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8월 5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4회의 예배팀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26년 이상 특별히 젊은 이들을 중심으로 KCCC에서 찬양과 경배 사역을 감당 해온 박종술 목사는 “현대 교회에서 찬양팀과 예배 사역자들의 소명이 재조명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향해 방향이 맞추어



KCCC Complete Worship Seminar 포스터

질 때 강력한 부흥도 함께 올수 있음을 믿으며, 이번 8월 한달간 ‘온전한 예배를 향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는다”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세미나에서는 참가자들이 깊은 예배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으며, 예배사역자들의 중간적 사명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그리고 찬양팀들이 알면서도 놓치지 쉬운 팀사역

의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영역, 찬양을 넘어서 예배전체의 흐름에 자연스러움과 성령충만을 위한 진행 방법 및 송리스트 만들기 등을 나누게 된다.

세미나의 장소는 1636 W. 8th St. Los Angeles에 KCCC Worship Hall 에서 열리며 참가비가 일인당 간식비 교재비 포함 45달러.

▲문의: (714)844-3705 (기사제공: KCCC)

소프라노 김미경 사모 첫 음반 ‘Alga’ 출시

‘하늘길에서 부르는 노래’ 자작곡 등 총 10곡 수록

소프라노 김미경의 첫 번째 음반 ‘Alga’가 출판됐다. 김미경 소프라노는 이번 앨범 출판은 ‘달란트 비유’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달란트 비유를 보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썩허두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이었어. 오랫동안 남편의 사역을 내조만 해왔는데, 이번에 좋은 기회가 돼 음반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온마을교회 담임 김중환 목사의 부인인 김미경 사모는 음반의 제목을 ‘Alga’라고 만들었으며, 앞으로 출판되는 앨범 역시 ‘Alga2’, ‘Alga3’

등 ‘Alga’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Alga’는 알파와 오메가의 합성어로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며 열가는 바로 남편인 김중환 목사가 지어준 이름이다. 이번 음반에는 총 10곡의 찬양곡이 수록됐다.

앨범 타이틀 곡인 ‘하늘길에서 부르는 노래’와 ‘너는 구하라’는 김미경 사모의 자작곡. ‘하늘 길에서 부르는 노래’는 만약 하나님께서 부르는 날이 온다면, 남겨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슬퍼하지 말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가는 나를 기뻐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노래하고 있으며, 동시에 남은 자들을 위로해주고 천국의 소망을 갖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곡을 쓰게 됐다. 또 ‘너는 구하라’는 일천번제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물으시면 무엇을 구할까를 생각하며 쓰게 됐다고 그것은 바로 주님만 구하겠다는 신앙고백이 담긴 찬양곡이다.

성신여대와 미국 Cal Art 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한 김미경 사모는 ‘러시아음악학’ 등 출연 경력도 있으며, 현재 미주북음방송 매주일 오전 6시20분에 방송되는 ‘시온의 아침’ 프로그램 제작과 진행을 하고 있다.

김미경 사모의 첫 번째 앨범 ‘Alga 김미경’은 현재 LA 한인타운의 기독교서적센터와 조이 기독교백화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213)435-8741, (박준호 기자)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에서 열린 강명식 찬양집회 모습

청년목회 활성화...지역사회와 함께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 강명식 찬양집회 성료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담임 방상용 목사)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강명식 찬양집회’가 지난 16일 열렸다. 600여명의 관객들이 예배당을 가득 채운 채 진행된 이번 찬양집회는 CCM의 한 길을 걸어오며 그만의 독특한 음악세계를 추구하고 있는 음악사역자 강명식의 고유한 색깔과 절제와 감동을 엿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공연은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가 지난해 29년간의 목회를 마친 석태운 목사의 후임으로 1.5세대인 방상용 목사가 부임해 내세운 청년목회 활성화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추구하는 목회 리더십의 그 일환으로 기획됐다.

방상용 목사는 “앞으로 세리토스동양선교교회의 청년사역이 남가주지역 청년사역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로 이번 공연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번 공연을 기획한 청년부 최순환 목사는 “지역사회의 영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며, “본 교회만을 위한 청년부가 아닌 지역사회와 선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일꾼으로서 청

년교회가 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비전케어서비스가 실시한 162차 아이티 아이캠프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있다

비전케어서비스 162차 아이티 아이캠프 열어

생명의전화 4-6월 통계, 여성이 남성의 2.5배

의료선교단체 비전케어서비스 미주서부(이하 VCS 지부장 사이몬 박 박사)가 제 162차 아이티 아이캠프(Eye Camp)를 지난달 13일부터 20일까지 아이티의 수도 프로토프랜스의 국립병원에서 열었다. 이번

캠프에서 181명의 환우를 진료하고 60여명의 개인수술과 11명의 안과 성형수술을 진행했다. 한편 VCS는 8월 2일부터 과테말라 아이캠프에 참가한다.

(기사제공: 비전케어서비스)



첫번째 음반 ‘Alga’ 출시한 김미경 사모

하나님 은혜 그 역사의 재발견
성지순례 선교여행
Pilgrimage Holyland Mission Vision Trip

순례코스 일정 MISSION VISION TRIP

A 코스: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출애굽 여정따라) 11박 12일
B 코스: 터키 그리스 베트남 (바울의 전도에 따라) 11박 12일
C 코스: 프랑스 스위스 독일체코 이태리 (유럽 종교개혁지 탐방) 11박 12일

1) 멕시코 칸쿤(유카탄 반도) 8쿠마
2) 페루 아마존(잉카문명)
3) 남미 브라질 칠레 아르헨티나
4) 알라스카(에스키모)(인디언)

세계성지문화연구소 중동북아 선교회
World Holy Land History Culture Institution & Mid East North Asia Mission

소장 권해수 선교목사
Chief Rev., Jason H. Kwon

757 E. Main St. W., 212 Lansdale, PA 19446
TEL (267)372-8537 FAX (208)485-1013
Email: jasonkwon777@yahoo.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내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실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NY: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LA: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 mail: LA@chpress.net

신규 변경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1 교회(기관) 이름	한글: 영문:
2 교회(기관) 주소	
3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4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영문:
5 사택 주소	
6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7 E-mail Add.	@
8 Web Add.	http://
9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시시오 4 번은 해당사항에 표시를 하세요

개신교와 가톨릭의 신학적 차이 미션라이프, 교황 한국방문 앞서 취재보도

교황의 한국방문을 앞두고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특별취재팀이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의 신학적 교리적 차이점을 취재해 보도했다. 동기사는 개신교와 가톨릭 사이에는 성경·구원관 등에 있어서 신학·교리적 차이점이 엄연히 존재한다며 주요 개신교 신학자들을 통해 양측의 신학적 쟁점들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사전문.

◇성경(계시)관=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개신교는 '오직 성경'만의 권위를 인정한다. 반면 가톨릭은 '교회 전통'을 성경의 권위와 동등선상에 놓고 있다. 곧 성경과 함께 교회 전통이 신자의 삶과 신앙을 구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김광열 총신대 교수는 "(가톨릭의 계시관)은 자칫 교회 전통의 가르침에 의해 성경의 권위가 무시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개신교도 교회 전통을 중요시하지만 어디까지나 성경의 권위 아래에 두고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개신교는 신·구약 66권만 성서로 인정하고 있지만 가톨릭은 이들 외에 '유딧기' '마카베오 상·하' 등 외경도 사용하

개신교는 '믿음' 통한 구원 가톨릭은 '성례' 통한 구원 중심

고 있다. ◇구원관=개신교 구원론의 핵심은 '이신칭의(以信稱義)'다. 즉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칭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가톨릭은 성례를 통한 구원을 가르친다. 세례를 통해 의롭게 되고 율법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고 있다. 이성호 고신대 교수는 "개신교는 성찬을 '식사로 이해하

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만, 가톨릭은 제사(미사)로 보고 이를 통해 죄가 사해된다고 믿는다는 점에서 양보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황 무오설=개신교에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가톨릭의 경우, 로마 교황을 사도 베드로의 사도권을 계승한 '그리스도의 대

는 제목의 논문에서 "교황의 교리 결정에 오류가 없다면 교리는 영원불변하면서 절대적인 교회의 전통이 될 것"이라며 성서의 절대적 권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리아 숭배=가톨릭은 예수님의 인간 어머니인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정의한다. 이어 마리아를 '중보자'로 인정해 하나님의 은총이 마리아를 통해 올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 기도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개신교는 삼위일체론에 근거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교리에 따라 가톨릭의 마리아 교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은 우상숭배의 죄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작은 죄를 씻어주는 '연옥'이 있다는 연옥설, 세례 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도 사제 앞에서 '고해성사'만 하면 씻어낼 수 있다는 가톨릭 교리도 개신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리자'로 인정하고 있다. 가톨릭은 특히 제 1바티칸 공의회(1869~1870) 때 신앙과 도덕에 관한 교리 결정에 있어서 '교황의 무오(오류가 없음)'를 공식적으로 선포했다. 이는 인간으로서 교황에게 오류나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교황이 교리나 도덕에 관해 선포한 칙령에 오류가 없다는 의미다. 김교진 연세대 명예교수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신학적 차이"라

예장고신 목사부총회장 선거 2파전 총회장엔 김철봉 부총회장 출마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장 주준태 목사) 목사부총회장 선거가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예장 고신은 17일 "전국 노회별로 진행된 후보자 추천 임시노회 결과 목사부총회장 후보에 신상현(울산 미포교회) 정수생(창녕제일교회)

목사가 추대됐다"면서 "선거는 오는 9월 충남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열리는 제64회 총회에서 진행 된다"고 밝혔다. 신 목사는 고신대와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서울노회장, 울산노회장, 총회 서기, 총무직무대

행,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울산시 기독교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미래목회포럼 공동회장과 총회 국내전도위원장을 맡고 있다. 신 목사는 "교단의 발전과 부흥, 교단 정체성 회복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목사와 고신대와 고려신학대학원을 졸업했다. 경안노회장과 경남중부노회장, 총회 헌법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은급재단 이사장,

부서기 등을 역임했다. 현재 총회 세계선교위원회장과 창녕경찰서 경목실장을 맡고 있다. 정 목사는 "총회 화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교단과 기관, 노회, 교회의 화합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총회장에는 김철봉 부총회장이 출마했다. 장로부총회장은 최수우(대구 운암교회) 이귀석(부산 하늘샘교회) 장로가 경합한다.

기침 총회장 광도희·윤덕남 목사 2파전 1부총회장 후보엔 유영식, 임원선거 9월 22일

기침 총회장 광도희·윤덕남 목사 2파전 기사의 사진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총회장 김대현 목사)는 차기 총회장 선거에 광도희(남원주교회 담임), 윤덕남(서울성일교회 협동) 목사가 입후보자 예비등록을 마

쳤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 등록 시한인 9월 2일까지 입후보자 변동이 없을 경우 총회장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진다. 제1부총회장 후보에는 유영식(동대구침례교회) 목사가 단독 출마했다.

기침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달 4일과 18일 각각 대전 침례신학대와 서울 여의도 총회관에서 1·2차 입후보자 소견·정책발표회를 가질 계획이다.

임원 선거는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대전 침신대에서 열리는 제104차 정기총회에서 실시된다.

특히 기침 총회는 올해 첫 선거공영제를 도입·시행하면서 후보들의

선거운동 방식을 엄격히 구분했다. 선거 후보들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공개토론회, 교단지를 통한 홍보, 전화 통화, 문자메시지 정도다.

반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후보자 개인 차원의 지역(지방회) 순회 방문이나 단체 모임, 개교회 방문, 목회자 등과의 일대일 만남 등은 금지된다.

전남 순천, 손양원 목사 테마성지 만든다 순천·여수 목회자들 '복음엑스포네트워크' 사업보고회

전남 순천이 용서와 사랑의 상징으로 불리는 고 손양원 목사를 테마로 한 기독교 순례지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순천 및 여수 지역 교계가 나서 손양원역의 이름 변경과 손양원 목사의 아들인 순교자 동인·동신의 표지석 설치, 국제성경수석 박물관 설립, 길이 40m 이상의 세계 최대 예수상 건립 등 기독교 인프라 구축이 세부적으로 제시됐다. 순천 및 여수지역 목회자들로 구

성된 복음엑스포네트워크(회장 임화식 목사)는 18일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기독교 관련 사업 보고회 및 도시사 및 시장 당선축하 감사예배'를 드렸다.

지역교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이날 순천도시사 및 조종훈 순천시장, 김병권 순천시의회의장이 함께 참석했으며 순천을 기독교 성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환영사를 한 임화식 목사는 "손양원 목사의 신앙정신과 유산을 본받아 이를 계승할 필요성을 여수세계박람회와 세계정원박람회를 보면서 다시금 느꼈다"며 "순천을 기독교 명소로 거듭나게 해 전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신앙의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교계가 한마음이 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고된 '동인·동신 순교표지석'은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이 순교당한 바로 그 위치에 설치하는 것으로 현재 상가를 이루고 있는 중앙동 상인회가 취지에 찬성, 동참의사를 밝혀주고 있다.

또 손양원 역 개명 추진 역시 이

명정이 기독교관광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코레일 전남본부측과 우호적인 대화 속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병선 집사(순천순동교회)가 앞장서고 있는 순천국제성경수석박물관 건립과 대형 예수상 건립계획에 참석자들이 관심을 나타냈다. 성경 관련 수석과 회귀수석 3700여점을 소장하고 있는 박 집사는 이를 건립될 박물관에 전시, 관광 유치 및 전도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박물관 옆에 현재 브라질에 있는 예수상 보다 더 큰 예수상을 건립,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제비뽑기 보완...선거 경쟁률 낮아져 예장합동, 직선제 가미 따라 후보들 선거 부담감

예장 합동(총회장 안명환 목사)이 제비뽑기 선거를 절충형(제비뽑기+직선제)으로 변경하면서 기관장과 상비부장 선거 경쟁률이 낮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직선제를 가미함에 따라 후보들이 선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신중하게 출마를 결정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예장 합동은 16일 "기관장과 상비부장 후보 접수 결과 대부분 단독 입후보했으며,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과 고시부 등 4개 부서에서만 각각 2명의 후보가 입후보했다"면서 "과거 3대 1 이상의 경쟁률이 2대 1 이하로 떨어진 것은 직선제를 가미한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장 합동 내 주요 4대 기관장은 총신대 운영이사장, 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기독교신문 이사장·사장, 공천위원장이다. 이들 기관장 선거는 입후보할 때 2000만원의 총회 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출품 2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총회 주요 부서로 손꼽히는 정치부, 교육부, 고시부도 그동안 3~5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총회 관계자는 "지나해가지만 해

도 상비부장은 등록비가 200만원이기 때문에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었고 검증 유무와 상관없이 제비뽑기 투표만 거치면 당선 가능성이 높았다"면서 "그러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절충형 선거제도에선 경쟁력이 없다면 당선도 어렵다고 판단해 출마를 꺼린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교단의 한 목회자도 "총회를 정찰설기겠다는 생각을 지닌 분들이 마음을 정하고 나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면서 "기관장 및 상비부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가 많았다는 것은 적합한 후보가 출마했다는 면도 있고 교단 정치에 대한 염증의 표현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비부장 선거는 수천만원의 발전기금을 납부해야 하는 입원선거에 비해 부담감이 적다는 장점이 있었다"며 "하지만 올해 직선제 도입으로 후보자들이 상당한 부담감을 느낀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담합 가능성만 낮춘다면 절충형 선거제도가 바람직한 제도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보교육감, 기독교 설립취지 훼손 우려" 기교연 '새교육감의 교육정책과 기독교교육' 세미나

"대거 등장한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은 경쟁을 촉구하는 입시위주 교육을 완화하면서 기독교학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지만 동시에 종교 중립을 주장하며 기독교사립학교의 설립취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기교연)가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새로운 교육감의 교육정책과 기독교학교교육'을 주제로 개최한 2014년 정책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입을 모았다.

'기독교학교교육의 관점에서 본 새 교육감들의 교육정책'에 대해 발제한 기교연 이종철 연구실장은 "6·4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진보성향의 시·도교육감 13명의 정책은 '고교 평준화와 경쟁교육 완화', '혁신학교 확대', '무상교육 확대', '학생인권조례 강화', '사학 비리 해결' 등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독교학교는 입시경쟁 완화 정책을 적극 환영한다"며 "입시 위주 교육이 각질되면 학부모와 학교는 입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교과목에 초점을 맞춰 기독교교과는 설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강화 정책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진보 교육감들이 종교 중립의 논리를 내세워 종교 관련 조항들을 과도하게 적용하면 종교계 사립학교의

설립 취지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실장은 "종교 중립을 요구하는 이들은 '신앙은 개인적인 것으로 학교라는 공적 영역에서 종교성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삶과 종교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종교계 사립학교에서 '종교성'을 삭제하는 것은 곧 '무종교로서의 종교'를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대광교 김철경 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움직임을 비판했다. 김 교장은 "사학은 당연히 건학이념을 스스로 구현해야 하고, 이를 위한 객관적 여건도 갖춰져야 한다"며 "현재 교육체제에서 기독교학교의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사고가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주장했다. 자사고는 교육과정과 교원사,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 받고 있다.

김 교장은 "학생의 종교적 인권을 존중하는 방안으로 원치 않는 학생은 종교계 학교에 배정되지 말고, 이미 배정을 받았지만 종교적 이유로 학교를 옮기고 싶다면 전학을 시키는 제도를 도입하면 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기교연 소장 박상진(장신대 기독교교육) 교수는 "사단법률 기독교적 비판을 통해 건강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h4>갈보리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h4>덴버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303)-422-6950, Fax. (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p>	<h4>몽고메리교회</h4> <p>담임목사: 최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h4>벅스카운티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월·화·목·금·토: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h4>벨뷰교회</h4> <p>담임목사: 진용태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영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h4>보스턴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침례청년부: 오전 10:00, (영): 오전 11:00 유니·유니·부: 오전 10:00</p> <p>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p>	<h4>샬롯장로교회</h4> <p>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예배: 오전 1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p> <p>Tel. (704)529-0900 / 0998(렉스켄들)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h4>새시온침례교회</h4> <p>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Tel. (360)458-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h4>시애틀평강장로교회</h4> <p>담임목사: 박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scattle.org</p>	<h4>알칸사 제자들교회</h4> <p>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후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사학.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kpcscattle.org</p>	
<h4>앵커리지영림문교회</h4> <p>담임목사: 유재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h4>엘파소영림문교회</h4> <p>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915)755-1490, 사학(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h4>영생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lmer Rd., Horsham, PA 19044</p>	<h4>온누리교회</h4> <p>담임목사: 김성환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an, TX 76541</p>
<h4>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h4> <p>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7:30(EM) 영어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h4>주역수교회</h4> <p>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h4>큰무리교회</h4> <p>담임목사: 나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 토, 주일)</p> <p>Tel. (410)203-0516, 사학. (410)203-0512 3173 St. Charles Pl. Ellicott City, MD 21042</p>	
<h4>타코마 삼일교회</h4> <p>담임목사: 정태근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새벽 6:00(토)</p> <p>Tel. (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p>	<h4>타코마새생명교회</h4> <p>담임목사: 임규영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말-토)</p> <p>Tel. (253)535-6207, 531-8424 Fax. (253)539-1432 9702 E. B. St., Tacoma, WA 98445</p>	<h4>타코마 한인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수명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학교: 오후 2:00(말-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53)536-6675, Fax. (253)744-8515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h4>템프장로교회</h4> <p>담임목사: 윤정용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 3부예배: 오전 10:50 주일 4부예배: 오전 12:10 주일 5부예배: 오후 2:00(말-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tpkccaz.com Tel. (480)726-0181, Fax. (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p>
<h4>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h4> <p>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 오후 8:00 영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p>	<h4>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h4> <p>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p> <p>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h4>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h4> <p>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p> <p style="text-align: center;">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선교의 창 (12)

월드컵을 통해 본 선교전략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FIFA 월드컵은 1930년 우루과이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이제 20화째를 맞은 본 대회는 2014년 6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 달여간 삼바 축구의 본 고장 브라질에서 열렸다. 대륙별 순환 개최 원칙에 따라 브라질이 남미의 단독후보로 나왔기 때문이다. 금번 월드컵은 강호들의 몰락과 약팀의 선전이다. 또한 64경기에서 171골이 터졌으니 게임당 2.7이란 많은 골과 다양한 스타일로 그 어떤 대회보다 흥미진진했다. 항상 우승후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브라질이 더군다나 홈그라운드 이점을 안고 있었기에 우승하리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브라질은 4강에서 독일에 7:1로 처참하게 패했으

전과 단단이라 불리는 독일의 힘을 바탕으로 한 선이 굵고 빠른 축구를 구사했다. 아무리 현란한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힘이 없으면 추풍낙엽과 같다. 브라질은 기교를 앞세운 축구였다. 결과는 참담했다. 모든 스포츠의 승리 관건은 정신력과 더불어 강한 체력에서 나오는 힘에 달려있다. 기독교 선교의 근원적 힘은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이다. 오 늘 선교현장에 과연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파하고 있는가? 혹 사람의 생각이나 재물이 앞서고 있지는 않은가? 선교사를 보낸 지 교회들은 영적 권능을 위해 전후적 기도를 하고 있는가?

팀에 따라 선수들의 기용이나 전술 등을 영리하게 구성했다. 그의 지도력에 힘입어 네덜란드는 무적함대라 일컫는 스페인을 5-1로 무력화시켰으며 브라질을 3:0으로 눌렀다. 이 밖에도 우수한 성적을 낸 팀들의 감독을 보면 대부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양한 경륜을 가진 자들이었다. 2002년 한국이 4강에 들어선 것은 히딩크라는 탁월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군대의 편법이 아무것도 아닌 지 같아도 그 속에 많은 노하우가 녹아져 있다. 한국선교사 가운데 경륜과 지략을 갖춘 사람들이 있다. 한국교회는 이들의 자선이 사장되지 않도록 장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오직 결과적 성적에만 목숨을 거는 한국적인 문화개선에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 선교현장은 어떠한가? 몇몇 규모 있는 단체 외에는 사무행정이나 너무나 영세적이다. 선교사 비닐, 훈련, 파송 및 관리, 위기상황 대처, MK문제, 은퇴연금, 안식년제도 등 끝이 없다. 장기적이며 건강한 선교가 되려면 선진적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방이 화려한 불꽃으로 뛰어든듯 대책 없이 무작정 선교자로 내보내는 풍토는 이제 생각해야 한다.

맺는 말
금번 월드컵에서의 한국축구는 세월호와 함께 가라앉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너무 큰

스포츠는 영적 싸움이다 승리의 공식은 통하기 마련이다. 승리는 결코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승리한 팀의 공통점은 힘과 체력, 조직화, 지도자, 인재양성, 선진행정이었다. 한국선교도 월드컵에서 산출된 인사이트(Insite)를 깊이 참고할 필요가 있다.

며 화란에게도 3:0으로 제 4위에 그쳤다. 또한 세계의 프로축구가 가장 발달해있는 3대 국가인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는 16강을 향한 조별리그에서 모두 나가 떨어졌다. 특히 디펜딩 챔피언이자 이번에도 우승 후보군에 들었던 스페인의 탈락은 큰 충격이었다.

한국은 브라질월드컵에서 사상 최초 원정 월드컵 8강이라는 원대한 기록을 갖고 나갔다. 하지만 누적된 후진 행정에 지도자의 역량 부족, 선수들의 투지 실종이 겹치면서 조별리그 1무2패 탈락이라는 쓴맛을 봤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대표하는 한국, 일본, 이란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역시 16강에 오르는게 낫단 1승도 거두지 못했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가진 아시아의 대표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승자와 우승한 팀을 통해 교훈을 찾아본다. 그래서 그것을 선교전략에 적용에 보는 것도 묘미가 있다. 스포츠는 영적 싸움이다 승리의 공식은 통하기 마련이다. 승리는 결코 하늘에서 우연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2. 조직력
금번 월드컵을 제패한 독일의 강점은 조직력이었다. 세계를 호령한 수퍼스타는 없지만 하나의 팀으로 똘똘 뭉쳐 내로라하는 팀들을 모두 제압했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경기의 짜임새는 일품이었다. 비록 4강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코스타리카, 콜롬비아의 돌풍은 진정한 '원팀(One Team)'이 무엇인지 알려줬다. 축구는 혼자 할 수가 없다. 팀워크가 승패를 좌우한다. 군대가 힘이 있는 것은 여러 병사들과 각자 모래알처럼 독자적인 사역만을 추구할 때 피선교지에 강력한 도전과 영향을 줄 수 없다. 한국 선교의 열심과 헌신은 자타가 공인한 바다. 하지만 연합적 팀사역에서는 할 말이 없다. 이제는 나라별로 교파와 파송단체를 초월하여 힘을 합쳐 조직화할 때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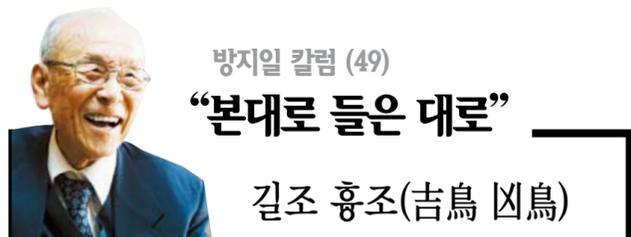
3. 탁월한 지도자
금번 월드컵에서 가장 주목받은 감독은 네덜란드의 루이스 판 할이었다. 그는 세계 명문 프로팀들을 이끈 숙성된 지도자였다. 그는 많은 노하우를 토대로 상대

4. 인재양성
독일은 2002한일월드컵 준우승 이후 유소년 투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각 프로팀에 유소년 팀을 의무적으로 창단하게 했다. 독일의 유소년축구 등 록 선수는 180만 명에 이른다. 이런 과정 속에서 젊은 유망주들이 탄생했다. 네덜란드도 유소년 선수가 미래의 희망이라 판단하고 아약스와 PSV 에인트호번이라는 양대 클럽을 중심으로 선수 발굴에 역점을 뒀다. 적어도 10년 후를 내다보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의 쓸 만한 제자는 하루 아침에 탄생할 수 없다. 인재양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다음세대를 내다보며 한국 교회는 인재를 발굴하며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는가?

5. 선진 행정
우수한 팀은 대표선수 선발시스템, 선수관리, 훈련지 선정, 감독 연안보장 등에서 매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을 했다. 인간관계나 명성 등에 의존하지 않았다. 선수는 현재가 중요하다. 아무리 이름값이 높아도 지금 상태가 안 좋으면 재고해야 한다.

비약이다. 하지만 일리는 있다.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통하여 우리 조국의 실상과 실력을 보았다. 배가 가라앉은 지 벌써 100일째 되었건만 아직도 문제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 우리의 축구는 어떠한가? 한마디로 초상점 분위기다. 아프고 부끄럽지만 우리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잘된 일이다. 다시금 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선교는 어떠한가? 너무 방만해서 무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크다. 이미 앞에서 지적한 5가지 힘의 원천, 조직력, 지도자, 인재양성, 선진행정 등 모든 면에서 걸리지 않는 것이 없다. 가시적 성과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내실이 허하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피땀 어린 투자도 작지 않건만 후대에 신랄한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바라건대 이재라도 세월호와 월드컵을 교훈삼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며 전략적 접근을 해야 한다.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방지일 칼럼 (49) "본대로 들은 대로"

길조 흥조(吉鳥 凶鳥)

나는 어려서부터 까치는 우리 새, 까마귀는 남의 새, 이렇게 나만 아니라 우리 민족은 까치를 좋아한다. 이런 관계로서인지 나는 가는 곳마다 여기 까치 있는가 물으면 서구지방엔 거의 까치가 없다. 내가 까치를 본 곳이 네바다 리노에서 보았다. 캐나다 퀘벡에서 비교적 추운 곳에 까치가 있고 좀 더우면 그것들이 안보인다. 까치가 있어도 까치집을 보지 못했다. 한국에는 어디가든지 나무 위에 까치집이 있곤 하다. 그를 볼 때마다 좋아했다. 어릴 때 까치가 지붕에 날아들면 좋아했다. 기쁜 소식이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그래서 서가 서울에서 까치를 길들이 비둘기 같이 번식시켜 기르다고 시청위에 까치를 기르더니 아무래도 비둘기 많이 번식도 어렵고 기르지 못할 판단인지 그만두고 말았다. 우리나라 제주도에 까치가 없다. 몇 번 번식을 시도하여 길러 보았으나 살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생각이 맞지 않는 모양이다. 까마귀는 흥조라 실어하였다. 까마귀가 집 가까이 와서 울면 무슨 흥조라고 쫓아보내곤 했다. 까마귀는 까치 같이 집 가까이 하지 않는다. 갓 갓 병아리를 까마귀나 까치가 훑어가기도 해서 병아리 어린 것은 들에 그리 내놓지 않기도 했다.

근자에 들으니 서구에서는 까마귀는 길조로 좋아한다. 까치는 흥조로, 곡물을 씨앗 뿌린 것을 파헤쳐 해조라 한다. 동서양의 관점이 달라서인가 그 실제가 까마귀가 길조가 되고 까치가 흥조인가는 보는 대로이겠거니와 우리 역사에 까치는 편지를 물어 던져서 신라임금의 위기를 모면케 하여 까치밥이라 해서 안락 밥을 지붕에 던져주기도 하는 습관이 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사52:7). 좋은 소식 평화의 소식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말한다. "내가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날날 나라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았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2:10-11). 가브리엘의 전한 소식이다. 소식을 전해주는 우편배달부도 실로 반갑다. 나는 촌에 있을 때 2일에 한번 배달해주는 배달부를 기다리다가 오면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른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천사 가브리엘이 고마운 천사다. 기쁜 소식을 전한다해서 우리는 길 흥조를 구별하는 것이다. 복음의 사자는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전한 가브리엘은 사람들을 흥애를 받는다. 좋은 소식을 듣고 어두운데 있는 이들에게 전하면 그는 길한 까치에 해당하여 한국아이들이 까치를 좋아하는 것이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자는 흥조에 해당한다.

오늘의 신앙인과 교회는 속죄 사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할 일이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4:2). 이 기쁜 소식을 힘있게 전할 부분이 신앙인에게 있다. 교회에게 있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로다"(행2:32). 바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행1:4) 약속은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다(눅24:47).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 이 기쁜 소식은 땅끝까지 전할 기쁜 소식이라 오직 위에서 임하시려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함이다.

이 복되고 기쁜 속죄 사죄의 복음은 인간의 어떤 힘으로는 안된다. 성령의 권능으로야 가능하다. 이 기쁜 이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오늘 산다. 교회는 세워진 것이다. 이 존재의 의미를 망각해선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다"(고전9:16). 전 하여도 되고 아니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전할 수 없다.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은 생명을 걸고 전할 책임을 진 것이다. 바른 증인이란 말은 순교에 해당한다. 한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내 견해의 길조는 소식을 전해준다 해서이다. 까치의 깃속 소리가 지붕에서 들리면 기쁜 소식이 있을가 기대된다. 이 기쁜 소식의 전달자로 살아 만족하다.

(1999년, 3권)

<p>세계로 뻗어가는 교회</p> <p>서부(CA)교회안내</p>		<p>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영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한시예배: 오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아예배: 오전 9:00(월~토)</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825-0100, Cell: (714)344-4377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8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나성영락교회</p> <p>담임목사: 김경진</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영양)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laac.org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388-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p>나성제일교회</p> <p>담임목사: 김광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5: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562)691-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나침반교회</p> <p>담임목사: 민경엽</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목회(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 대가족: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p>
<p>남가주든든교회</p>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EM): 오전 1:30 주말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sdolrock@gmail.com</p>	<p>남가주리더교회</p>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www.scrdm.com Tel: (213)215-8523, Fax: (213)977-1182 1536 S. Western Ave., L.A., CA 90016</p>	<p>남가주사망교회</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영양목회(월~금):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동장로교회</p> <p>담임목사: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p> <p>Tel: (714)719-2244, Fax: (714)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jcc.org</p>	<p>등문교회</p> <p>담임목사: 김상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Tel: (213)483-8625, Fax: (213)483-8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7 www.egkpc.org</p>	<p>등양선교회</p> <p>담임목사: 박형은</p> <p>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도예배: 오전 9:30 3부 영아예배: 오전 11:00 4부 영아예배: 오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323)466-1234, Fax: (323)466-0818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Tel: (213)559-7728 (전화 콜링),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St., RB L.A., CA 90033</p>
<p>드림교회</p> <p>담임목사: 이성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9:30 영아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St., Pasadena, CA 91106</p>	<p>미주양광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9:45(영양)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www.mjpac.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310)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 90505</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한요</p> <p>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00(영양) 새벽기도회: 오전 11:00(영양) 대형찬양예배: 오후 1:00 영아예배: 오후 1:00(영양)</p> <p>Tel: (818)249-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4 Irvine, CA 92612 www.bkc.org</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상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가족)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브리지교회</p> <p>담임목사: 장세정</p> <p>주일 1부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학교: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5:30 새벽예배: 오전 5:30</p> <p>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p>
<p>삼성장로교회</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말 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아예배: 오전 6:30(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금)</p> <p>www.samsungchurch.org Tel: (562)939-9800, Fax: (562)939-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p>	<p>새천양교회</p> <p>담임목사: 변윤선</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주일학교: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www.newpraisechurch.org / ysbony@gmail.com Tel: (714)825-0100, Cell: (714)344-4377 6269 Ball Rd., Cypress, CA 90630</p>	<p>새생명선교회</p> <p>담임목사: 김만수</p> <p>영아 1부예배: 오전 9:30 영아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 3부: 오후 7:00(영양)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오후 8:00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p> <p>Tel: (818)952-2449 13005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p>	<p>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714)745-9911(CH), 사택: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안디옥장로교회</p> <p>담임목사: 지윤성</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양) 주일학교: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교육부예배: 오전 11:00</p> <p>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2720 Montrose Ave, Glendale, CA 91202</p>	<p>얼바인침례교회</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www.ircv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요셉선교회</p> <p>담임목사: 정성호</p> <p>주 일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저녁 7:30 금요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p>	<p>윌셔크리스천교회</p> <p>담임목사: 엄규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학교: 오전 11:00(영양)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토요일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학교: 오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9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학교: 오전 11:30 주일예배: 오후 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토요일예배: 오전 11:00(주일) 은혜채플: 오전 11:00(주일)</p> <p>www.gracem.com Tel: (714)446-6202,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rnestonely.com / e-mail: pastor@cornestonely.com Tel: (310)530-4040 /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2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바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양)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p> <p>www.toranceccp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선교 펴기

이스라엘

살롬!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긴박한 상황 가운데 현지 사역자 에이탄(Eitan) 목사로 부터 기도편지가 도착하였습니다. 중보자들과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향숙 선교사.

살롬, 신실한 중보기도자 여러분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다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파괴하고자 작정하고 공격하면서 고조되는 냉담한 상황 가운데 공격이

자행됐습니다. 이번 공격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3명의 이스라엘 청소년을 잔인하게 살해한 즉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직후, 이스라엘 청년이 이에 대한 응징으로 예루살렘 아랍 청년을 산채로 불에 태웠습니다. 총격과 탄식 그리고 실망으로 휘청거리는 이스라엘과 폭동으로 뒤덮인 거리에서 하마스는 기회를 노리고 테러를 자행했습니다.

지난 며칠 간 하마스는 이스라엘 인구 밀집 지역을 겨냥하여 500여개 이상의 탄두 미사일 로켓을 날렸습니다. 공습경보 사이렌이 북부 하이파(Haifa)와 메투라(Metullah)에서부터 텔아비브(Tel Aviv), 예루살렘(인구 고밀집지역), 비어 셰바(Beer Sheva), 아슈켈론(Ashkelon), 아슈도드

(Ashdod), 스테루(이스라엘 가자 점령 지역 도시)와 그 외의 마을과 공동체까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로켓 및 포격 방어 무기인 아이론 돔(iron Dome)이 수많은 미사일을 정확히 조준하여 타격하고 있는 가운데, 하마스 테러리스트들은 여러 타겟에 대항하는 빗발치는 로켓 공격이 아이론 돔 무기 역량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100번이 넘는 무차별한 공격(합동 군사공격 포함)에도 이스라엘은 비교적 경미한 재산피해와 상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서 우리의 안부를 묻는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심 깊은 격정에 감동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위치한 지역에는 포격을 받지 않았습니. 2006년 전쟁과는 다

르게 포격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2/3에 해당하는 지역과는 다르게 공동체피소로 대피하지 않았습니.

몇 가지 기도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스라엘 유스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카피르에서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현재 75명의 이스라엘 십대들이 "마지막 때"라는 주제로 공부(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바로 서기 위해 십대들을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 전쟁이 울지 아무도 모릅니다.

- 1.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와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이들의 시도가 실패로 끝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시편 3편).
- 2. IDF 군대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됩니다(4만명의 예비군 중에 제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안전, 용기, 정확한 협조를 책임져주시고 가지지구에 최소한의 사상자만 생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 이스라엘 국민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십시오. 안전하게 보호받아서 이 불안한 총돌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시편 121:3-4절).

4. 사기, 복수 그리고 파괴라는 잔혹한 망에 사로잡힌 가지지구 주민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고한 시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들의 눈과 마음이 온전한 구원자 그리고 구세주에게 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5. 이스라엘 정부 지도자들이 군사 대안을 조직하는데 있어 초자연적인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

도 부탁드립니다(디모데전서 2:1-5절).

6. 카피르(하베스트) 청소년 캠프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때"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캠프가 마칠 때(다음주)까지 청소년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변화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시편 91편!).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못 하리라"(시편 91편 5절, 9-10절). 사랑과 무한한 감사를 보내며 에이탄 드림

탄자니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메마른 땅에 대지를 적시는 비가 그렇게도 반가웠는데 벌써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부터 시작되는 건기는 이제 12월까지 계속 됩니다. 들녘을 하얗게 눈처럼 덮었던 시즌 플라워(season flower)가 한때는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지만 이제 이 땅의 아픔의 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심었던 옥수수나 조, 콩, 해바라기 등 수확을 기대하지만 가뭄의 시작에 곡물들이 아물기도 전에 메말라버린 들녘은 농부들의 얼굴을 시름으로 차게 합니다. 그러나 올해에도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이 아프리카 동쪽에서 먼 것처럼 멀리 지는 해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생각할 때가 엇그제인데 벌써 7월 중순을 치닫고 있습니다. 12, 1, 2 월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 말라이카(Malaika: 천사) 크리스천 유, 초등학교개학을 위한 준비에 많이 바빴습니다. 비가 멈추는 시간에 6칸의 교실과 두 동의 화장실, 3칸의 창고와 두 칸의 임시 부엌 등 지어져야 할 건물들, 정리되어야 할 건물들의 마지막 공사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야 했습니다.

1월에 개학되어야 할 학교였지만 한 달을 늦추고서야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2월 17일 개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에 감사함은 오랫동안 기도해왔던 기독교 유치원, 초등학교가 등록되고 개원되었습니다.

97년부터 가난하고,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이들,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학교가 오픈되고 72명의 아이들이 와서



예배와 함께 일반 교육도 겸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중에 더러는 고아들이고 더러는 너무 가난한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 이제 이 아이들의 입술에서 성경 구절이 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드리지며 성경과 학과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개의 교실, 1개의 교무실, 1개의

의 영상수업실, 남녀로 완전히 구별된 현대화된 화장실 등... 이 모이는데 더러는 너무 가난한 학교에 갈 수 없는 아이들... 이제 이 아이들의 입술에서 성경 구절이 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드리며 성경과 학과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찌 그분들의 기도의 무릎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기억치

않으시겠습니까. 동역하신 한분 한분, 그리고 교회들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 4월 감사한 것은 매년 이곳을 방문하는 베델선교팀들이 다시 아프리카로 와 주셨습니다. 팀들의 숫자가 두 배가 되어 오셨습니다.

내과, 치과, 침술, 안과, 사진사역, 어린이사역, 복음사역 등... 총체적으로 이루어진 사역은 이곳 현지인들에게 많은 치료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더 감사함은 두 지역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9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돌립니다.

4, 5, 6 월 베델선교팀들이 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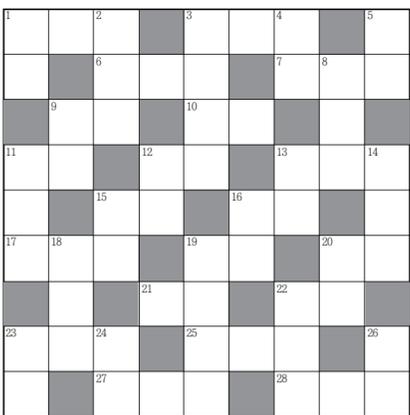
자마자 전적으로 응근교회와 건축을 마무리하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곤 아프리카에 짓는 교회가 왜 그리도 오래 걸리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대답은 건축사업자들을 통하지 않고 교인들과 더불어 교회를 짓다보니 더디게 지어지고 재정도 더 들어 가지만 선교사가 건축사업자들을 통해 짓는 교회가 아닌 교인들, 그들의 손길로 참여하고 수고하여 교회를 짓기 위해서입니다. 예상치 못한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있지만 이제 교회의 아름다운 외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응근에는 도도마 시에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지만, 마을이 제대로 개발되지 못해 전형적인 외곽과 부촌들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마을 한 가운데는 동네 아낙네들이 집 한 모퉁이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16면으로 계속)

십자말 • Cross Word (45)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가로 푸는 열쇠>

- 1. 나팔을 부는 사람(왕하11:14).
- 3. 요나가 삼일삼야를 그 속에서 지냈다(욥1:17).
- 6. 아브라함이 이 사람에게서서 막벨라굴을 샀다(창23:16).
- 7. 운동경기를 하는 마당(고전9:24).
- 9. 우리나라 민속적인 노래기구의 하나. 어린이공원에도 많다(명).
- 10. 해와 달과 무한한 별들의 사는 곳(시148:4).
- 11. 열가나의 아버지(대상6:35).
- 12. 소승에 있어서 소송을 당한 사람(렘25:16).
- 13. 거처적거리는 물건(레19:14).
- 15. 장성한 씩씩한 남자(사46:8).
- 16. 시체를 관속에 넣는 일(창50:26).
- 17.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산19:18).
- 19. 교인을 교적에서 삭제하여 버림(요9:22).
- 20. 아주 다름(욘21:16).
- 21. 노방. 노년(시110:7).
- 22. 여인들이 아름답기 위해 얼굴에 그리는 것(렘4:30).
- 23. 송사 때 울고 그름을 판결하는 사람(마5:25).
- 25. 형제가 없는 단 하나뿐인 아들(눅9:38).
- 27. 예수님도 이 민족이었다(요10:19).
- 28. 남녀 간에 한 쪽만이 사랑하는 일(상식).

<세로 푸는 열쇠>

- 1. 예수의 족보 중 한 사람(눅3:25).
- 2. 여호와와 진노하심으로 막들에서 이곳까지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하신(렘29:10).
- 3. 말할 것도 없이...(레18:9).
- 4. 생물이 살아 움직이는 힘(욘17:1).
- 5. 나서 자람(창17:23).
- 8.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랑하는 것.
- 9. 레위의 둘째 아들(수21:20).
- 11. 요단강 동편 다윗의 용사 엘리엘이 살던 곳(대상11:46).
- 12. 살갓(레13:2).
- 13. 한 관청의 으뜸 벼슬(출14:7).
- 14. 물을 길는데 쓰이는 기구(요4:28).
- 15. 아내의 아버지(창18:12).
- 19. 시집간 딸은 친정과는 남이라는 뜻(고사성어).
- 20. 널빤지를 대어 만든 울타리(창38:27).
- 22. 갑자기 호들갑스럽게 활짝 펴 놓는 모양(국어)
- 23. 일을 해내는 힘. 재간(마25:15).
- 24. 관제에 쓰는 기름(창25:6).
- 26. 신부를 취하는 자(요3:29).

십자말 정답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2)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경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02)2-490-7000, Fax. (0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성가기도회: 오후 9:00 Tel. (062)522-4834 500-170 경교장역시 북구 관음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인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967(주말) VIA DEI QUINTILI 32-39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 (02)32-440-9000, Fax. (0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파동 330-5, (134-830)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월요일 휴무, 월요일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HP. (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국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기도회: 오전 6:30 Tel. (02)2-2646-3181-3, (0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340-1(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은 쉰다) www.seongsil.or.kr Tel. (02)2-998-098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3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경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토요일은 쉰다) Tel. (02)15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02)32-568-0191, Fax. (0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포동 416-1(404-270)	승등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사택. (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로구 신사동 137번지	시온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의왕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Tel. (02)182-842-1968, 사택. (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9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관음동 172 29(감일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2)2-786-6579, 사택. (0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0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월영로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중승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전 12:00 금요일기도회: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0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1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2-482-3536, Fax. (02)2-488-4508 서울시 중랑구 성내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7:0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경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0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10. 사모의 인격 가꾸기(1)

사모의 인격은 다른 보통 여인들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라는 호칭 그 자체는 사모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사모는 이래야 한다, 사모는 저래야 한다, 사모이기엔 다른 여성들과는 무엇인가 달라야 한다. 혹은 미혼녀들 중에 좀 특별히 열심이고 유난히 착하기라도 하면 "사모감이야" "그럼 그렇지" "어쩐지 달라" 이런 말들을 흔히 듣게 됩니다.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모라면 적어도 이래야지 하는 기준이 보이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실제로는 사모들에게 많은 놀림을 안겨주며 심지어는 헤어 나오지 못하는 수렁에 깊이 빠져 들게도 됩니다.

인격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그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는 이제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

게 책임을 전가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 후유증으로 사모는 밤잠을 설치며 심하게는 우울증까지 걸립니다. 이런 저런 상처를 받은 사모는 자신의 본래의 모습은 어디로 가 버리고 성도들 앞에 또 다른 모습으로 마스크를 쓰고 나타나야 합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는 그래도 제법 순수하고 정직하고 해맑은 얼굴로 웃음이 가득하여 있었지만 오랜 세월 이렇게 시달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속과 겉이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희로애락의 표현에 많은 제재를 받기 때문입니다. 우습다고 마냥 웃어도 안되고 때로는 본의 아닌 거짓말도 해야 하는 자리가 사모의 자리인 것입니다. 마치 양심에 화인 맞은 자처럼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온갖 상처로 인해 자신의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고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생겨진 자신의 모습은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도 한심할 때가 있습니다.

본래의 모습과는 달리 이상한 성격의 소유자가 된 사모가 어느 날 자신을 들여다 볼 때 한심해 보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처녀시절엔 안 그랬는데... 갱년기라도 될까치면 심한 우울증으로 모든 의욕까지 잃어버리게 되기 쉽습니다.

필자의 경우에 20여년의 사역을 마치는 그 날, 부푼 꿈을 안고 미국에 도착한지 1년 된 어느 날, 하나님은 남편을 불러가셨습니다. 그 날 이후였습니다. 사모의 길을 걸어 온길 20년이 훨씬 넘어서 어느 날, 예고도 없이 홀사모가 되던 그 날을 생각해봅니다. 까마득한 장래를 여쭙건뎛야 할지 고민하며 애타하다가 마침내 병이 들어 쓰러지던 그 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던 그 날,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멎어집니다. 그러나 엄청난 사실 앞에서 있는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와주셨습니다. 다시금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던 그 날, 그 앞에 쓰러졌습니다. 잘한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남달리 충성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일등 사모가 되려고 달려왔었는데...

인격은 타인에게 영향 미쳐... 사랑 나누는 일에는 반드시 따라야 자아통찰 통한 성숙한 인격 형성의 근본은 말씀 위에 서는 것

는 것이 인격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많은 은사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인격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그 열매는 뻥한 것입니다.

'조해리의 창'이라는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자아에는 네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나도 알고 남도 아는 "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것으로 평가하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둘째는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사모들은 특히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성도들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 조심하고 긴장을 합니다. 들리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자녀들까지도 거룩한 척하지 않으면 구설수에 오르기 쉽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사모들의 스트레스는 심한 병까지 걸리게도 되지요. 한국에 가면 십계명에 한 가지를 덧붙여서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에게 들리지 말찌어다" 이것을 위해 안간힘을 쓰다 지치는 자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셋째는 나는 모르는데 남이 아는 "내"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거울을 드러다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의해 지적을 받게 되는 경우입니다. 사모들에게는 이런 경우 심한 충격을 받는 일도 생깁니다. 열도당도한 말이 나돌게라도 되면 사모는 억울한 감정에 밤잠을 설치게도 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당신을 당나귀라고 부르면 무시해 버려라 그러나 두 사람이 당신을 당나귀라고 부르면 귀를 만져 보라 만약에 세 사람이 당신을 당나귀라고 부른다면 등에 안장을 차라." 내가 모르는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모들은 다른 사람과 달리 온갖 구설수에 오를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습관 중에는 성도들끼리 서로 다투다가도 가장 만만한 사모에게 온갖 누명을 다 뒤집어 씌울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이 곤란한 일을 당해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경우에도 가장 만만한 사모에

주님은 저의 영안을 열어서 저의 인격에 병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들과 남편목사님을 지적하는 형사병, 심한 상처로 찌들어 있으면서도 증세를 모르는 감각 없는 문둥병,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하는 척하는 척병 등 온갖 인격의 병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는 주님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통곡과 회개의 울음소리가 기도원의 적막을 깨뜨리고 새로운 충성을 각오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사람을 사모라고 사랑해 주셨던 성도들 앞에 무어라고 인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 내렸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받으신 하나님은 새로운 찬송을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중한 죄짐을 벗겨주신 주님의 십자가는 사벌의 고통을 이기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내"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보면 알게 모르게 원하던 원치 않던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또는 곁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을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다 보면 어느 덧 무의식 세계로 옮겨집니다. 이것은 남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식하지 못한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에 지대한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이런 부분까지도 터치해서 치료해 주시니 오늘도 그 말씀 앞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도 쫓겨 쫓겨감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월 구령에 대한 열심(눅14:1-23)찬257장

구령에 관한 주님의 열심이 어떠합니까? 첫째, 주님이 마련한 잔치는 모든 것이 장만된 큰 잔치입니다(16, 계3:20). 그 중 죄사함, 영생, 성령의 능력, 풍성한 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초청받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욕과 일락욕으로 한결같이 사양함은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혼동해 복음잔치의 풍성함에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인은 누구든지 강권해 데려다 집을 채우라 하셨습니다(23).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원시복음인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받는 구원의 계획(창12:3)을 성취하십니다. 그 덕으로 이방인인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 구원은 내게서 끝나지 않고 내 이웃을 위해 마련된 것임을 잊지 말고 주인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때 진정한 구령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화 기도 응답(눅18:1-7)찬479장

참된 기도는 어떤 원리를 따라야 합니까? 먼저 의식된 마음에선 참 기도가 나오지 못합니다. 참 기도는 참 신앙의 표현입니다. 어떤 요소가 포함 됩니까? 첫째, 하나님만을 상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것이 바로 그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둘째, 영적부담을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러듯이 기도의 제목을 가집니다. 찬양, 고백, 간구 그리고 감사의 요소를 가지되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

님과 바른 인격적 관계를 가지게 합니다. 셋째, 받기까지 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교제의 긴밀한 연합이 이뤄지게 되고 진실한 신앙성장이 이뤄지고 무엇을 받았는가보다 그 분과의 오랜 친밀성을 배우며 그의 형상을 닮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기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시간을 들이게 하시고 수고를 쏟게 하시고 굴곡을 두십니다(눅18:7). 모든 기도는 반드시 주님의 정한 때에 응답됩니다.

수 하나님 나라(눅19:1-38)찬248장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보인 하나님나라는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38절은 그에 관해 무엇을 보여줍니까? 첫째, 찬세전과 미래의 영원계를 보지 못한 신자는 현실에 입한 하나님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모순과 갈등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에게 그 나라가 이미 임했고 그 나라 맛을 보고 있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는 육안으로 볼 수 없으나 그 나라의 증거는 볼 수 있습니다. 둘째, 그가 맞은 하나님

나라는 크게 두 요소가 드러납니다. 무리들이 부른 찬송가사에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곳이 하나님나라입니다. 먹이나 마시나 영광을 주께 돌리는 마음이 있다면 복됩니다. 다른 하나는 평화입니다. 그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평강이며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의 은혜로 충만하기 위해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에게만 모든 영광을 돌리고 그가 주시는 평강에 잠겨야 합니다.

목 종말의 지혜(눅21:1-15)찬401장

주님은 제자들에게 종말을 어떻게 대처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15) 첫째, 예루살렘 멸망징조와 더불어 세상 종말의 징조를 가르치셨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면서 지구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때의 징조만이 아니라 그 때를 통과하는 교회의 지혜를 일러주시며 세상방법이 아닌 하나님나라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믿을 때에 온갖 핍박을 당할 때 변명할 것을 연구치 말라 하셨습니다. 자기 재주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

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궁지에서 이길 수 있는 구제(words)와 지혜(wisdom)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종말을 잘 지나기 위해 가난한 마음(마5:3)을 갖는 것입니다. 둘째, 성경의 지혜를 얻는 성경말씀을 묵상함으로 거기에 숨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말의 환난에서 피할 피난처며 기근의 때 먹을 양식이며 혼란 때 불을 지혜이며 흑암의 날에 갈 길을 밝히 보여주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금 완전한 죽음(눅23:1-46)찬165장

한 순간으로 수많은 구약 예언과 교훈들과 사건들 성취됨을 보인 46절은 그리스도 죽음의 어떤 성격을 나타냅니까? 46절 한 마디가 주님이 오신 목적이 성취돼 그 효능이 영원히 나타나는 유일한 근거가 된 셈입니다. 십자가란 그의 죽음을 상징한 것이기에 그의 완전한 죽음을 생각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그의 완전한 죽음의 증거를 누가는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나가

는 길이 모든 신자 각자에게 이뤄진 것을 보였습니다. 이 길을 향해 나가는 자는 살아나고 새로워 지도록 돼있습니다(히10:20). 둘째, 백부장과 주변사람들이 주의 마지막 말을 들었고 멀리서 여러 남자와 여자들이 목격함으로 죽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십자가는 진실과 사실로 이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 역시 사실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굳게 잡고 완전한 생명을 누립니다.

토 성령의 조명(눅24:1-32)찬177장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일어난 사건은 성령의 조명에 관해 무엇을 가르칩니까?(32) 첫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은 우리 신앙의 근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만 됩니다. 그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다 해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 알고 받아들임으로서 구원을 받습니다. 만일 성경

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가짜입니다. 둘째, 이 방법이 우리 생애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방법이었었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두 제자와 동행해도 알아보지 못한 채 낙심했을 때 주님은 성경을 풀어주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풀어주는 말씀을 자세히 들을 때 눈이 뜨여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기까지 성경에 착념하십시오.

한신교회 이윤재 목사 신간

464면 / 17,000원

예수 제자의 삶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의 좋은 제자인가?
한국교회에서 예수영성의 회복을 부르짖는
한신교회 이윤재 목사의 오랜 고민의 흔적이 담긴 책.
『예수 제자의 삶』 --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마리아의 길,
예수님과 함께 사는 제자의 삶,
두 시리즈로 이어지는 글에서
우리는 예수님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발견한다.
『예수 제자의 삶』이 제시하는
예수 제자 된 삶을 이제 펼쳐보자.

320면 / 14,000원

생명의 숲

생명을 말하다.
당신은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예수 안에서 목마름이 해결되었는가?
예수생명 안에서
자라고 나누는 풍성함...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7-8

분당한신교회 이윤재 목사

508면 / 17,000원

344면 / 12,000원

272면 / 10,000원

240면 / 9,000원

256면 / 8,000원

250면 / 9,000원

인/터/뷰

제16대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회장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

“지역별 연합기도운동 펼치고 싶다”

“미주지역에 세워진 한인교회들은 미국과 세계선교를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500여 교회들과 연합해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린 제 16회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미기총) 총회에서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담임)는 임기 내에 지역별 연합기도운동을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의 큰 교단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동성애 문제가 심각한데, 교단에서 이에 대해서 성경의 잣대보다는 세상의 잣



세기총과 함께 전임자들이 해왔던 남북교류와 통일사역 지속할 터
4개 지역 공동회장들과 네트워킹 형성, 사역 잘 펼치도록 조직 결속

대로 대하는듯해요. 한국의 경우도 교단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결국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으로 기도운동과 회개운동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한목사는 16회를 맞이한 미기총이 미주 내 4500여 교회들과 100여개 지역 교회협의회를 대표하는 기구라고 설명하고, 미기총이 중심이 돼 각 지역별 연합기도운동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말입니다만 미국은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고요. 이럴 때 미주지역에 우리 한인디아스포라가 살게 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타락해져가는 미국을 위해 섬기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기도운동입

니다”
흔히 임기가 마쳐지고 지도력이 바뀌게 되면 전임이 펼쳐온 사업이 중단된다. 이에 대해 미기총은 전임자와의 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한목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

“미기총은 지역교회와 달리 방대합니다. 방대하다보니 지역도 4개 지역 즉 서부, 중부, 남부, 동부로 나누어져 지역별 회장단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전임자의 사업을 계승하기보다는 본인의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미기총은 제 임기동안 해야 하는 사업이 있지만, 전임자가 추진해왔던 사업도 이어받아서 펼쳐가고자 합니다. 그중 하나가 남북교류와 통일에 대한 것입니다. 전임회장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니까요. 그것을 제 임기동안 이어나갈

것입니다.”
한목사는 세기총(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에서 펼쳐나가고 있는 남북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에 미기총도 함께 동참해 동역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회장이 타 지역으로 넘어가게 된 후 서부지역이 소외가 되는 느낌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한기홍목사는 “이번 임기동안 타 지역에서 비슷한 소외감을 느끼는 곳도 있을 것”이라 말하고 “이는 미주지역이 방대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 말했다. 한목사는 미기총 산하 4개 지역 공동회장들과 함께 네트워킹을 이루어 사역을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조직을 결속시켜 16대는 물론 17대 18대 등 장기적으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LACMA콰이어, 8월 22일 The Spirit of Korea 공연

지휘인생 51년 대한민국 합창계의 대부 윤학원코랄과 협연

LAKMA(Los Angeles Korean-American Musicians' Association)가 주최하는 The Spirit of Korea 공연이 오는 8월 22일(금) 오후 8시 월트디즈니 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대한민국 합창계의 대부인 윤학원 교수(인천시립합창단 예술감독/중앙대학교 음악대학 학장)가 참여하며 그가 이끄는 코랄 51명이 LA를 찾아오게 된다. 그와 더불어 LAKMA의 코랄 연주자들과 브라스 앙상블, 사물놀이 등 총 110명의 연주자가 이번 공연에 함께하게 된다.



LACMA콰이어 지휘자 윤임상 교수

LACMA 콰이어 지휘자인 윤임상 교수는 “윤학원 선생님은 말 그대로 합창음악의 대부이며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자자하신 분입니다. 이번 공연은 메인포커스가 ‘한국의 얼’입니다. 그에 걸맞게 연주곡들이 한국적인 음악의 감성표현에서 나오는 한이 서린 음악이며 리드미컬한 음악이 연주자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특별히 사물놀이 등이 어우러진 ‘아리랑 판타지’가 초연이 된다. 아리랑 판타지는 ‘한국의 얼’을 감동 그대로 전하는 최고의 창작곡으로 우리의 뿌리 깊은 정서를 찾아볼 수 있는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이라고 귀띔한다.

윤학원 선생은 40여년 동안 월드비전선명회합창단, 대우합창단, 서울레이디스싱어즈, 인천시립합창단을 통해 한국합창의 고품격화, 대중화를 이끌었고, 지금은 한국의 젊은 작곡가들을 발굴해 새롭고 발전적인 한국합창을 창작해 이를 세계에 알려 합창 한류를 주도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완벽함과 정교함 속에 한없는 로맨틱과 따뜻함이 공존한다. 천부적인 음악적 감각과 열정, 시대를 직관하는 통찰력 경이로운 업적으로 세계는 그를 아시아의 Eric Ericson이라 부를 정도로 존경

과 찬사를 보내고 있다.

한국합창총연합회 이사장, IFCM세계합창연합회 이사, 월트디즈니컴퍼니 심사위원, 중앙대학교음악대학 학장, 월드비전선명회합창단 음악감독과 원장을 역임했고, 현재는 극동방송 윤학원코랄 음악감독, 한국합창지휘자아카데미 원장, 인천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음악회는 LAKMA가 먼저 공연을 펼치며, 윤학원콰이어가 두 번째 무대를 서게 된다. 그리고 연합합창을 하게 된다. 연합합창의 전담부는 윤임상 교수가 지휘를 하게 되며 인터미션 후에 벌어지는 무대는 윤학원 선생의 지휘로 합창이 이루어진다.

이번 공연을 위해 작년 12월부터 준비를 해왔다고 윤 교수는 밝혔다. “원래는 2014년 공연을 한국의 얼을 잘 전수하는 기관을 찾자는 개념으로 UCLA의 김동석 교수를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UCLA에서 클래스를 열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 인지 회의를 한 결과 올해는 특정한 단체를 돕는 행사는 열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순수하게 우리문화를 잘 전달하자는 취지로 윤학원 선생님과 그분의 팀을 불러서 연주회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본 공연은 올 1월 공연을 어떻게 열 것인지도 결정했으며,

시기는 8.15이후로 잡고 공연준비하고 있다. 연습은 매주 월요일 윤임상 교수가 뮤직디렉터로 사역하고 있는 한길교회에서 가졌으며, 지난 4월에 한길교회에서 열린 소수민족 교회를 돕는 자선음악회 연습과 병행해오다가 자선음악회를 마친 5월부터 공연연습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음악회에 참여하는 멤버 중 한인들에게 알려진 자로는 베이스 패트릭 블랙웰을 비롯 소프라노 클라라 김, 클라라리, 테너 오위영 등이 있다.

윤임상 교수는 “이번공연을 통해 우리정서에 맞는 교회음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보통 교회의 찬양대의 음악은 외국 번역 곡을 많이 사용해왔습니다. 번역 곡의 한계는 원 저작자의 의도를 놓치게 되는 실수입니다. 아무래도 영어와 한국어의 어순의 차이로 인해 작곡가가 의도한 강조점이 종결되는 모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윤학원 선생님이 우리정서에 맞는 곡을 많이 만들어 보급하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이곳 미주지역에서도 우리문화에 맞는 음악이 많이 보급돼 베시건에 찬양하는 일이 많아졌으면 합니다”라고 강조한다.

▲ 공연 및 티켓 구입 문의는 (213) 880-3688, namostory88@gmail.com

(박준호 기자)

(14면에서 계속)

저녁이 되고 밤 12시가 되면 열대명의 아낙네들이 숲에 취해 큰 소리로 외쳐댈다. 마치 그들의 가슴 속에 있는 한이라도 토해내는 것 같은 소리입니다. 온 동네가 이들의 소리에 한바탕 진동을 하고 나면 그제서야 조용해집니다. 밤마다 외치는 소리는 그들의 아픔을 토해내려는 아낙네들의 소리입니다. 왜 그러냐는 질문에 현직인의 대답은 대개 두 사람 이상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버려진 부인들의 한 많은 소리, 그들의 삶의 소리

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갈 수 없는 작은 길을 걸어가다 보면 좁은 길들이 집과 집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오가 되기 전 오전이지만 흙으로 지어진 집 담벽 옆에 이제 30대 갓 넘은 가장들이 바짝 마른 몸으로 땅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고, 천진한 아이들이 그 옆에 앉아 흥겨운하는 모습이, 몇몇 집을 계속 걸어가 보지만 똑 같은 모습들입니다. 아무런 희망조차 안 보이는 말라버린 농작지가 더 힘들어 보입니다.

위해서 텐트에서 지낸지도 벌써 한 달을 넘어 두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낸 날만큼 한생애와 장티푸스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무리되어가는 있는 교회건축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은 이 땅 응코메에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며 요청합니다.

- 1. 성령충만함으로 모든 사역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도록

- 2. 살아가는 동안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시 여기며 사모하며 바라보도록
- 3. 이전에 주셨던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게 하고 더 많이 감사하며 살도록
- 4. 이곳 현지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 5.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선교부를 운영하도록
- 6. 우리의 원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 7. 선교부에 속해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 속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 8.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악한 생각들(분노, 교만, 열기)이 사역 가운데 나타나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 성령님의 다스리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회개하는 시간들을 놓치지 않도록
- 9. 이루어져가는 사역들에 하나님

- 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 10.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늘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살고자 작정한 그 마음의 뜻이 변하지 않도록
 - 11. 동역하는 현지 목회자 자녀들의 학비지원이 계속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시오.
- 샬롬
탄자니아 도도마에서, 황광인 영속 선교사 드립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신학교 신학교 학생모집

www.rptse.com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학교안내

본 신학교는 미주에서 가장 큰 한인 장로교 교단이며 북미주 보수 장로교 및 개혁신학교 협의회(North American Presbyterian and Reformed Council)의 정회원인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신학교로 성경 영감과 절대 권위를 신조로 삼고 개혁주의 신학훈련을 통하여 복음적 목회자를 양성하는 정통적 보수 신학교입니다. 역사적인 21세기를 맞이하여 개혁운동을 통하여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 불타는 신실한 일꾼들을 양성할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신입생 및 편입생을 모집합니다.

특 전

- 국내외 저명한 교수진 확보
- 성적우수학생에게는 장학금 지급(특히 목회자, 선교사적 사명감이 투철한 자에게는 선별 심사후 장학금을 지급함)
- 6만여권의 한글, 영문 신학장서를 소장한 도서관이 있음
- 목회학 석사 졸업자는 총회 목사고시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음
- 대학원 과정을 졸업한 여전도사는 본 교단 산하와 그외 기관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수 있음

2014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 학 부	신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 학 원	목 회 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 교 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어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제 출 서 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 4. 신앙고백서 1부
- 5. 명함판 사진(2"×2") 2매
- 6. 입학 전형료 30불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 2. 원서접수마감 : 2014년 9월 5일(금) 오후8시
- 3. 입 학 시 험 : 2014년 9월 6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 4. 개 강 부흥회 : 2014년 9월 8일(월) - 10일(수) 저녁 8시
- 5. 문 의 처 : Admission Office
학 감 / 교 부 : 문경환 박사 (646)717-2733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총무처장 (516)782-4564
Fax.(718)463-7047

동부개혁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